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2008. 12

CONTENTS

December 2008 통권 180호

표지에 담는다
세계 명품도시 ⑪ 스위스 취리히

Fly Incheon_

04 파이팅 인천 — 인천SK 한국시리즈 우승
10 아시아 컬처 허브 — 밀라노 디자인시티
12 밀라노 디자인시티 협약식 참관기 — 新르네상스시대 연다
18 2009 인천방문의 해 —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인천
20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 환경 · 에너지 Zone
22 포커스 — 인천의 힘찬 발걸음
24 Fly Incheon News — '유럽 · 중동 국제행사서 인천홍보' 외
27 웰컴 투 인천 — '베트남 하이퐁시, 도시축전 참가' 외
28 뉴스 플러스 —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기공
29 군 · 구 소식 — '자장면 박물관 조성' 외
30 시의회 소식 — '밀라노시의회와 우호협력 협정' 외
32 시의회 Zoom in — 시의회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
33 핫이슈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36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⑪ — 스위스 취리히
46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 영어서비스 인증제
58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 백령도

Incheon Life_

06 아듀 2008 — ① 빛의 미학, 인천의 야경 ② 세계 주요도시의 불빛 경쟁
14 가보았습니다 — 검단선사박물관
34 글로벌 인천 — 카르타헤나 & 밴쿠버 방문
40 막나막下 — '모스트리필하모닉 송년음악회' 외
47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 이혼과 조세
52 Info Box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외
56 포커스 — 21세기형 지역커뮤니티 동네마당

Incheoner_

31 모닝 인터뷰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
35 김치찰칵 — '선녀님들, 뒤를 조심해요!' 외
43 모닝커피 한 잔 —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실래요
44 인천역사 책갈피 — '합창음악'의 도시 인천
48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 열전 ⑪ — 인천 선교의 아버지, 조원시
50 독자글마당 — '급 높은 부츠를 신고 딴 운전면허' 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4) / 광고문의 (032-440-3052)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8년 12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공보관 김진택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편집위원 정경숙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해동종합기획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V2

SK와이번스가 해냈다 인천이 해냈다

야구 100년 인천, 대한민국 제패

잠실벌에 '연안부두'가 우렁차게 메아리쳤다. 인천SK가 지난해에 이어 한국 프로야구 왕좌에 올랐다. 지난 10월 3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두산과의 5차전에서 두산을 2대0으로 누르고 시리즈 성적 4승1패로 200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챔피언을 차지했다. SK는 인천시민의 '생각대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규 시즌 2년 연속 우승과 한국시리즈 2연패란 쾌거를 이룩했다.

우승 축하 카퍼레이드

지난 11월 8일 인천신세계백화점 광장에서는 시민들과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승회'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안상수 시장, 고진섭 시의회 의장, 한국야구위원회 신상우 총재, 야구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 시장과 고 의장 등은 우승의 주역인 SK 감독과 선수 · 코칭스태프에게 꽃목걸이를 증정했으며, 한국시리즈 MVP 최정 선수와 주장 김원형 선수는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어 시민들의 환호에 답례했다. 이어 안 시장과 김성근 감독 등이 나눠 탄 차량 2대를 선두로한 축하행렬이 인천종합터미널을 지나 문학구장으로 향했다. 문학구장에서는 1부 행사로 선수단소개, 우승보고, 꽃다발 전달식이 진행된 뒤 2부 행사로 원더걸스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됐다. 참석자 모두 '연안부두'를 열창하며 행사는 마무리됐다.

夜~好~
그곳의 밤은 낮보다 매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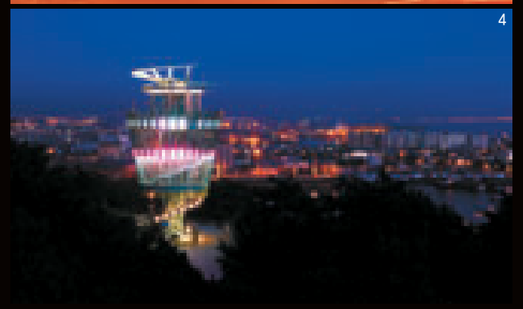
밤은 하루의 또 다른 시작이다. 맨얼굴을 했던 도시는 짙게 화장을 하며 다시 깨어난다. 어둠에 잠기자 고운 색실을 이어 짜듯 도시의 빛은 색다른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도시는 어둠 속에서 찬란한 '내일'을 꿈꾼다. 2008년 저무는 시점에 빛 따라 꿈결 같은 인천의 야경 여행을 떠나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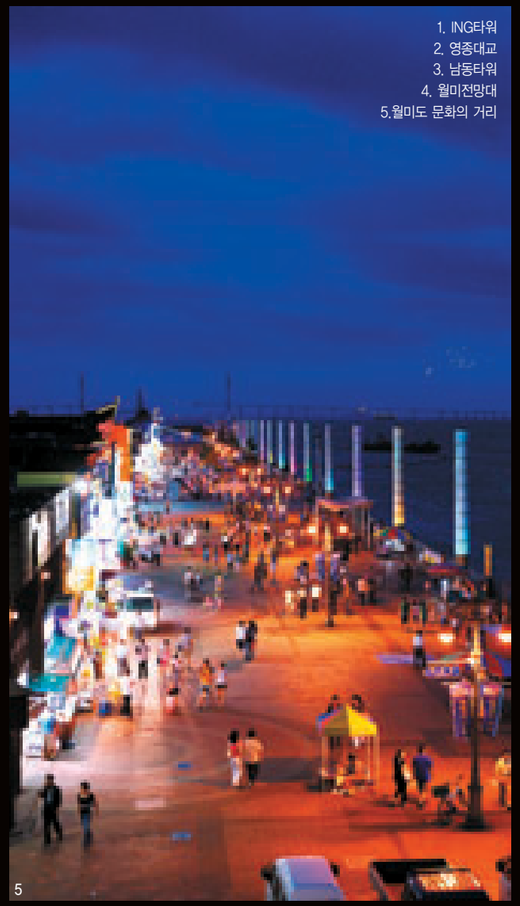
글 · **유동현** 본사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1

2

3


4


1. ING타워
2. 영종대교
3. 남동타워
4. 월미전망대
5.월미도 문화의 거리
5

서쪽 끝, 인천에서는 언제나 해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야경은 하늘이 짙은 진홍빛에서 매혹적인 보랏빛으로 변하는 일몰시점에 절정을 이룬다. 어둠의 베일 속으로 세상 모든 것이 잠기는 시간.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을 뚫고 나와 온 세상을 밝히면, 인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불빛을 머금은 도시는 낮에 보았던 평범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몽환적인 풍광이 눈앞에 펼쳐진다.

2008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인천의 야경은 두 거탑으로 인해 더욱 더 화려해 졌다. 송도국제도시 입구에 세워진 ING타워는 높이 17m짜리 탑 3기로 구성돼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향한 멈추지 않는 진화'를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LED 대형화면으로 구성된 타워 앞뒷면은 다양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디지아트 캔버스 시스템으로 최첨단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상징조형물로 손색이 없다. ING타워는 2008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에서 공공디자인환경디자인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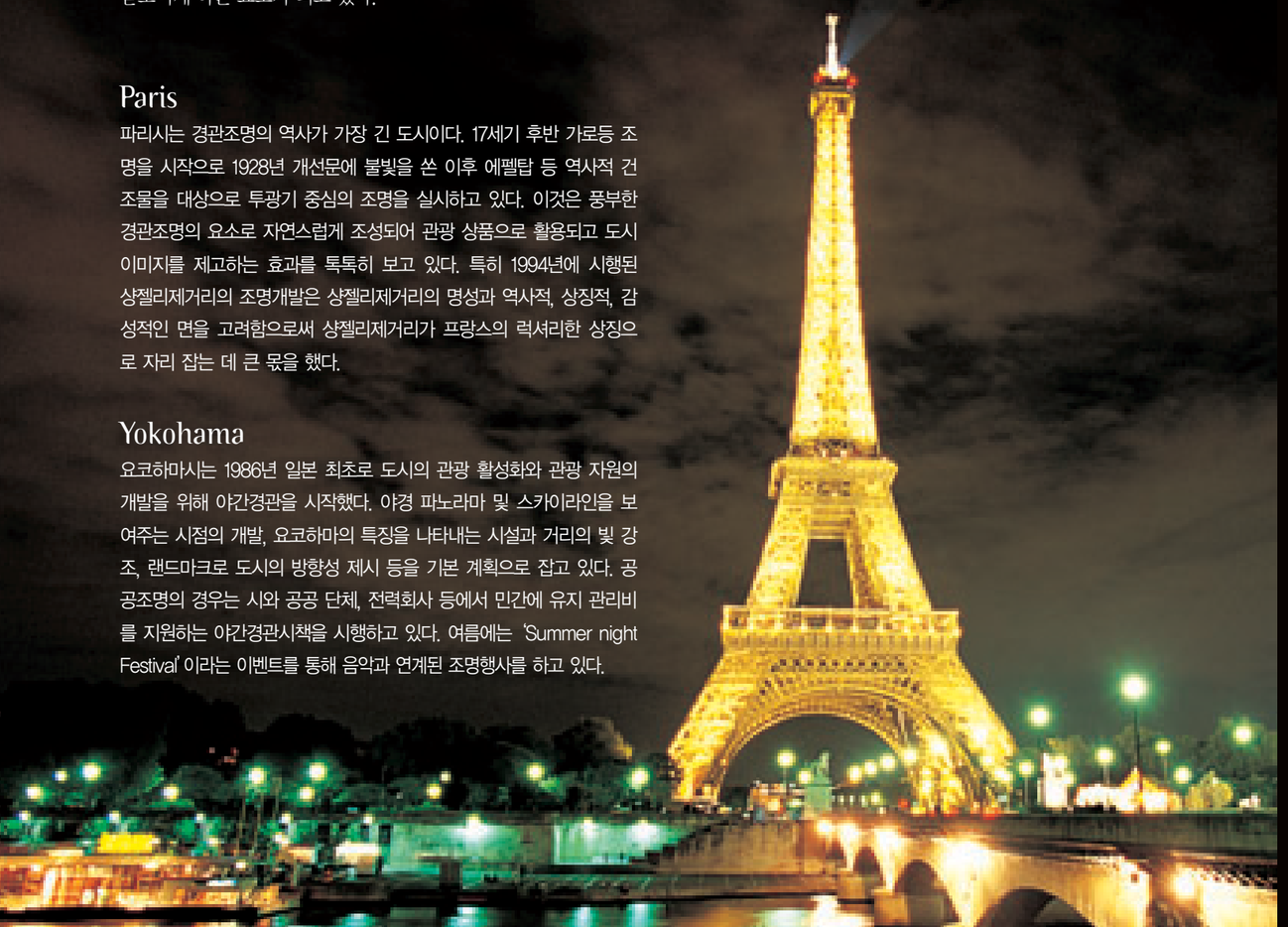
최근 논현지구에도 탑 하나가 우뚝 솟아 별밤을 환히 밝히고 있다. 내년 1월 정식으로 오픈 예정인 남동타워는 122m의 탑으로 기업IR 및 남동구 홍보관 등 전시장과 전망대가 들어서게 된다. 이밖에 날이 갈수록 '발광(發光)'의 면적이 커지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관제탑과 마주하고 밤새워 오색등 빛을 나누는 월미산전망대, 오대양육대주로 나가기 위해 밤새 불을 밝히는 인천항 등 인천의 밤은 빛으로 가득하다.

Light up~
세계는 '불 밝혀' 돈을 벌고 있다

현대의 도시들은 여러 방면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 깜깜한 어둠 속의 불빛도 도시 경쟁의 한 부문이다. 야간경관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편리하게 할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 형상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세계적인 도시마다 역사성, 상징성을 담아내는 도시야경의 연출에 힘을 쏟고 있다. 매력 있는 도시야관경관은 도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담아낼 뿐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도시자원이 된다. 도시 정체성은 하나의 도시이미지로 형성되어 관광객들에게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하게 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한다. 더불어 세계 유명도시들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해가 진후의 시간으로 확대시켜 새로운 야간의 문화공간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도시야간경관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Paris

파리시는 경관조명의 역사가 가장 긴 도시이다. 17세기 후반 가로등 조명을 시작으로 1928년 개선문에 불빛을 쏜 이후 에펠탑 등 역사적 건조물을 대상으로 투광기 중심의 조명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풍부한 경관조명의 요소로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관광 상품으로 활용되고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1994년에 시행된 샹젤리제거리의 조명개발은 샹젤리제거리의 명성과 역사적, 상징적, 감성적인 면을 고려함으로써 샹젤리제거리가 프랑스의 럭셔리한 상징으로 자리 잡는 데 큰 몫을 했다.

Yokohama

요코하마시는 1986년 일본 최초로 도시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 자원의 개발을 위해 야간경관을 시작했다. 야경 파노라마 및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시점의 개발, 요코하마의 특징을 나타내는 시설과 거리의 빛 강조, 랜드마크로 도시의 방향성 제시 등을 기본 계획으로 잡고 있다. 공공조명의 경우는 시와 공공 단체, 전력회사 등에서 민간에 유지 관리비를 지원하는 야간경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름에는 'Summer night Festival'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음악과 연계된 조명행사를 하고 있다.

London

런던의 도시조명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어 기념물, 궁전 그 밖의 역사적 건물을 조명한다. 1970년대에 들어 '라이트 업 템즈(Light up Thames)' 계획에 따라 테임즈 강 주변을 중심으로 밝히기 시작하였다. 런던탑, 세인트폴사원, 서머셋하우스, 국회의사당, 왕궁, 왕립병원 등 100여 개소를 집중적으로 비춤으로서 조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런던의 다리들의 조명연출과 역사의 흐름을 잘 부각시킨 도시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침체된 영국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Sidney

1998년에 시드니시는 도시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경관조명 업그레이드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공공구역에 높은 질의 기능성 조명을 확보하기 위한 'New Smartpole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시드니시의 야간경관사업의 목표는 야간 조명을 개선하여 공공안전, 공공오락, 건축적 가치, 심야 유흥의 활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버브릿지와 오페라 하우스 일대의 경관조명을 함으로써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여 많은 관광객과 도시의 이미지를 위한 확실한 랜드마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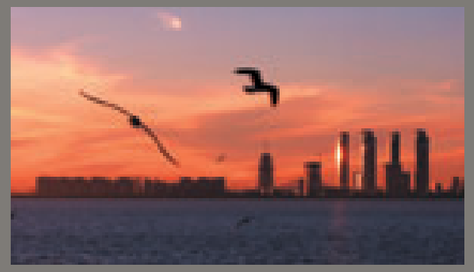
Shanghai

상하이는 100여 년 전부터 '불야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야간조명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상하이 야경은 1850년대 개항 당시의 와이탄 지구 유럽풍 고건축물부터 최근의 초현대식 건물에 이르기까지 강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푸동지구의 고층 건축물과 어우러지는 동양 최고 높이의 상하이 방송타워(468m) 등을 중심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해 세계적인 '불야성'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Feel Good City, Incheon

미래 인천의 야간경관 사업목표는 'Feel Good City' 즉 '기분 좋은 도시'이다. 'Feel Good City'는 새로운 빛 문화도시의 도입으로 활력 있는 거리를 연출하고 특화거리, 역사문화거리 등을 통한 빛의 연출로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그리고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빛의 연출로 주변 환경과의 친화적인 야간경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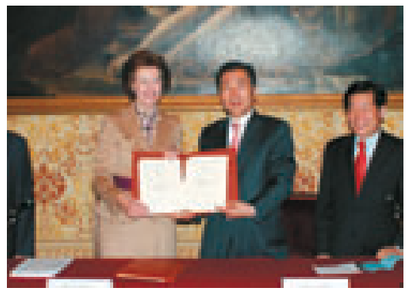
인천의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연출과 인천항, 인천공항, 월미도, 자유공원 등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를 선정해 파노라마식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밝고 환한 빛의 강조를 통해서 국제도시로서의 고품격 도시브랜드를 표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종도에 새로운 밀라노를 세운다

세계 디자인의 메카 밀라노가 영종도에 고스란히 옮겨진다. 피에라 밀라노 전시장부터 에우로페오 디자인스쿨, 베르디 국립음악원, 레오나르도다빈치 과학박물관까지. 이제 인천 영종도가 전 세계 디자인을 대표하는 21세기 아시아 컬처 허브로 찬란하게 꽃핀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이탈리아정부관광청 · 시 국제협력관실



인천, 이제 디자인으로 통한다

'밀라노에서 모든 것은 디자인으로 통한다'. 2017년, 세계 디자인의 중심도시인 밀라노가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밀라노 디자인시티를 건설한다.

우리시는 피에라 밀라노(Fiera Milano) 전시 · 컨벤션 그룹과 함께 트리엔날레 밀라노(Triennale Milano),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 베르디 국립음악원 등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최고 수준의 디자인 · 문화 · 교육시설 9개를 유치, 밀라노 디자인시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이 바야흐로 21세기 아시아 디자인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안상수 시장과 레티치아 모라티(Letizia Moratti) 밀라노시장은 지난 11월 14일 밀라노 시청에서 영종도에 밀라노 디자인시티를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밀라노 디자인시티 건설 협약은 올 1월부터 추진됐으며, 우리시는 중국 상하이와의 접전 끝에 밀라노의 아시아 첫 진출지로 정해졌다.

제2의 밀라노, 밀라노 디자인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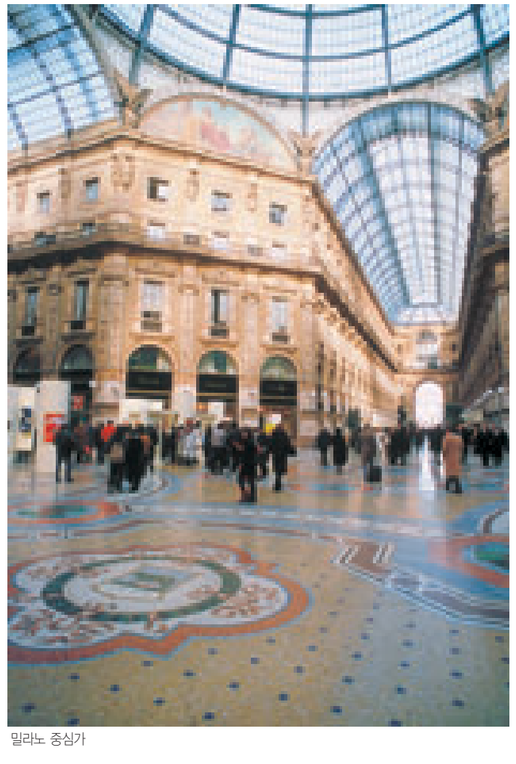
디자인시티는 오는 2017년까지 중구 운서동 영종하늘도시 내 전시 및 산업시설용지 370만㎡에 사업비 3조 408억원을 들여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하며, 설계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알렉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와 김석철 명지대 건축학과 석좌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전시관은 세계 전시업계 최초로 5개 동을 부채꼴로 배치해 관람객들의 동선을 짧게 하고, 태양열 에너지와 해수를 이용한 최첨단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 설계된다.

두 도시는 협약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피에라 인천 1단계 사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피에라 밀라노는 전시 · 판매 · 물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계적인 종합 전시장으로, 피에라 인천은 이탈리아 본사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 76만㎡ 규모로 조성하게 된다. 피에라 밀라노 전시장을 중심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 베르디 국립음악원, 라스칼라 오페라극장 등을 유치해 고급 문화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2017년, 영종도에 디자인시티가 세워지면 국제적인 전시가 활발히 유치되고 전시산업이 발달해, 6조원의 경제 효과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밀라노에 흩어져 있는 디자인 인프라를 밀라노 디자인시티로 집결시켜, 인천이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밀라노 디자인시티 주요 유치기관

밀라노 유치기관	사업내용
피에라 밀라노	• 세계 최고의 전시 · 컨벤션 그룹 · 전시관람객 연 500만여 명 • 전시면적 47만㎡, 연 70회 이상 국제전시회 개최
트리엔날레 밀라노	• 1933년 설립, 전시관 총면적 1만 2천㎡ •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모던 아트 디자인 전시회
에우로페오 디자인스쿨	• 1966년 설립, 유럽 최고의 디자인스쿨 • 8개 도시 분교, 총 학생수 5만 2천여 명
베르디 국립음악원	• 1808년 나폴레옹이 설립, 이탈리아 최고의 권위 있는 음악원
레오나르도다빈치 과학박물관	• 1953년 설립,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안한 도면에 따라 모형이 전시
CINEMATO 그래피아 스쿨	• 1953년 설립, 49개국 115개 분교 • 오스카 · 칸 등 국제영화제 조직 및 개최 지원
라스칼라 오페라극장	• 1778년 설립, 수용인원 3천600여 명 • 오케스트라, 합창단, 필하모닉, 박물관 등 운영
SPD 디자인 스쿨	• 1954년 설립, MS 및 아우디 디자인
피콜로 극장	• 1947년 설립, 연극 · 뮤지컬 분야 종합예술학교


밀라노 중심가

인천, 밀라노와 함께 新르네상스시대 연다

글 | 사진 · **이돈성** 세계일보 기자

11월 12일. 밀라노를 향하는 시간 내내 르네상스의 태동지에 간다는 설렘이 고개를 들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존의 금융질서가 무너지고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작금의 형국이 마치 신문명이 탄생한 르네상스의 새벽과 흡사하지 않은가. 어쩌면 중세시대를 지탱하던 봉건주의처럼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체제가 급속히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태동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시점에 인천시와 밀라노시간에 '밀라노 디자인시티' 공동협약식 동행취재에 나선 기자의 뇌리에는 '문명사적인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동양에 세워지는 '제2의 밀라노'

이튿날 오전 고풍스런 밀라노시청 2층 접견실. 베이지색 상하의에 널따란 갈색 허리띠를 졸라맨 여장군 이미지를 풍긴 채 안상수 시장을 맞은 밀라노 모라티 시장의 첫 마디는 '유어 베리 패셔너블(You're very fashionable)'이었다. 지난 2월 인천을 방문했던 모라티 시장은 구면인 안 시장을 신뢰했다. 모라티는 여러 차례 안 시장의 높은 식견과 추진력, 그리고 문화도시를 만들려는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 같은 양측 지도자 간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디자인과 문화의 세계수도로 일컫는 밀라노. 굳이 인천에 둥지를 틀려는 이유는 무얼까. 모라티 시장은 협약식에서 참석한 지도층을 향해 "밀라노 디자인시티는 동양에 세워지는 제2의 밀라노"라면서 "인천을 통해 중국과 일본 등 동양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던졌다.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꿈꾸는 인천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듯했다.
협약식을 마친 직후부터 3일 동안 안 시장과 고진섭 인천시의회 의장, 유천호 부의장 등 일행은 밀라노 디자인시티에 들어설 각 기관들을 방문, 운영현황을 파악했다. 안 시장은 마음이 바쁜 듯 식사시간 이외 단 10분의 여유도 갖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운영비 등을 꼼꼼히 묻고 수첩에 기록했다. CEO의 고민이 진하게 묻어났다.
처음 방문한 베르디 국립음악원의 대표는 1990년대 4명의 전직 총리를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하고, 6천명에 이르는 권력층을 수사한 '마니폴리테(깨끗한 손)'를 지휘한 당시 사베리오 보렐리 검사팀장이었다. 그는 정중히 안 시장 일행을 맞아 "귀한 손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음악"이라며 최고수준의 성악가인 제자를 내세워 내리 4곡을 들려주었다.

신문명위한 21세기 실크로드

1만3천㎡의 시설물에서 700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라스칼라 아카데미는 압권이었다. 매년 120편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며 유럽 최고 수준의 라스칼라 극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이면에는 무대를 꾸미고 의상과 각종 소품을 제작하는 공간과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년 전 오페라 무대를 장식했던 의상과 소품들이 놀랍도록 잘 간직돼 있었고, 관객을 사로잡았던 무대는 모형으로 제작, 보관됐다.
르네상스의 중심 축에 서 있는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기념관인 국립과학기술관은 과학의 기초 분야를 전시해 놓고 있었다. 개관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를 위해 훤히 불을 밝힌 채 이사장이 직접 안내하는 성의를 보였다.
세계에서 연간 500만명을 끌어들이는 피에라 밀라노 전시장은 부러움 그 자체였다. 정부는 전시장에서 터어키까지 연결되는 철도와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었다. 집중과 선택이 돋보였다. 안 시장은 "밀라노의 속살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500년에 걸쳐 완공된 세계 4대 도우모 밀라노성당과 성당 앞 광장에 모여든 관광인파, 4천만원짜리 장 프랑코 페레의 명품 밍크코트를 걸치고 수천 만원하는 손가방을 들고 거리를 누비는 명품족 등이 인상 깊었다. 하지만 도우모 성당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역사 속에 갇힌 듯한 밀라노.
훗날 역사가들이 인천과 밀라노의 협약식을 일컬어 '신문명 탄생을 위한 21세기 동서양 실크로드 개설'로 기록했으면 좋겠다. 2012년 1단계 사업이 완공될 밀라노 디자인시티에서 그 첫 모습을 볼 수 있기를 …

두오모 성당 전경

밀라노 시청 전경. 시청 앞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조각상이 우뚝 서있다.

유럽 최초 대학기관으로 세워진 파비아 대학의 관계자들

피콜로 극장 내부전경

베르디국립음악원 전경

라스칼라 아카데미에 잘 보관된 오페라무대에 올려진 의상

고고한 역사, 베일 벗고 빛을 보다

검단선사박물관이 지난 11월 27일 장구(長久)한 시간의 문을 열었다. 무거운 시간의 옷을 벗고 다가 온 선사시대의 유물은 일상이 잔잔히 배인 숨결의 역사다. 발굴된 현장이 눈앞에 펼쳐진 바로 그 곳, 검단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신석기·청동기 등 선사시대 유물과 마주해 본다.

글 · **김애란** 남동마당 기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동양지구와 원당지구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집터

손에 잡히는 선사시대

차곡차곡 쌓여진 역사의 옷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한 것은 검단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역사적 가치를 깊게 담고 있던 검단지역이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다양한 유물로 보여주고 있다. 한강과 근접한 평야지대의 지리적 요건이 일찍이 사람이 윤택하게 살았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많은 양의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는 것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검단선사박물관에는 2004년 서구 검단, 원당, 불로지구에서 출토된 유물 760여 점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수탁 받은 유물 2천200여 점 등 총 3천여 점의 선사유물이 손에 잡힐 듯 친근하게 전시되어 있다. 다른 박물관에서 접하기 힘든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풍요롭게 전시되어 있고 전시된 유물 모두가 진품이라는 특별함은 선사박물관만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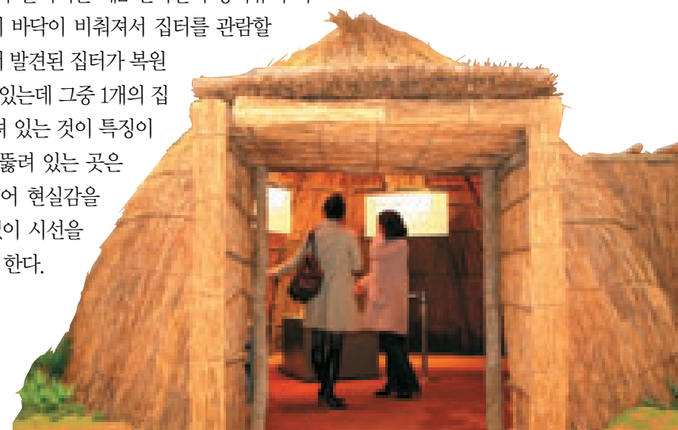
검단선사박물관은 서구 원당동 근린공원 내에 1천800m² 규모 지하1, 지상 2층으로 수장고를 비롯해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체험학습실 그리고 옥외에 하늘정원, 선사공원 등으로 조성되었다.

제 1 전시실

선사박물관에 들어서 처음으로 대하는 제1전시실은 빔프로젝트를 통한 박물관 소개 동영상을 시작으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게 된다. 움집을 통과해 시간을 거슬러 들어서면 시대별, 지역별 유물이 테마별로 정돈돼 있다. 디오라마형식으로 전시되어 있어 시대의 생활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아기자기한 크기의 유물들이 타 지역의 유물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어 고고학적 평가가 높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원시인과 기념사진도 찰칵!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을 원시인의 모습이 세워진 포토존에서의 사진 한 장은 신비하고 즐거운 웃음이 더해지는 추억여행이 된다.

제 2 전시실

발굴작업과 전사작업을 복원해 놓은 곳을 지나 들어서는 제2 전시실의 강화유리 다리는 순간 관람객을 아찔하게 한다. 투명하게 바닥이 비춰져서 집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동양지구와 원당지구에서 발견된 집터가 복원되어 전시돼 있다. 총 4개의 집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개의 집터에서 3개의 각기 다른 시대의 집터가 겹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집터의 넓이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은 유물과 기둥이 있던 자리로 세심하게 복원되어 현실감을 높여주고 있다. 과거의 신비가 발밑에서 말없이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방망이질치게 한다.



1. 원시시대의 생활을 재현한 제1 전시실
2.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습을 통해 원시인의 숨결을 느껴본다
3. 선사문화체험장의 모형도구들
4. 선사공원에는 청동기시대의 돌무덤이 있다

하늘정원과 체험 학습실

2층 옥외에 마련된 하늘정원은 사계절의 멋과 정취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책을 읽을 수도, 옹기종기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어도 정겨운 문화와 역사의 쉼터이다.

발굴체험학습장은 땅 속에서 잠자는 역사의 흔적을 발굴하는 경이로운 체험과 발굴유물의 이해를 돕는다. 발굴체험학습은 토기발굴체험과 불을 피우는 활비비, 씨를 갈았던 갈돌갈판 등을 손으로 직접만지고 사용해 볼 수 있다. 선사문화체험장은 선사시대의 옷과 장신구, 농경의 발달과정과 생활상을 전시하고 있다.

선사공원

박물관을 나와 작은 나무 계단을 따라 오르면, 선사박물관 뒤쪽에 자리한 선사공원이 있다. 산책하듯 오르는 아담한 공원은 역사의 현장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다. 선사공원의 정상에서 만나는 청동기시대의 돌무덤(석관묘) 3기는 당시의 사람들의 영리함을 짐작하게 한다. 고대문명에 쌓여 있는 이곳 정상에서 만난 바람은 묘하게 시원하다.

인천을 대표하는 테마 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은 인천 서북부지역의 문화적 갈증에 단비와 같은 박물관이다. 주민들에게 역사와 문화적 관심을 증대시켜 주민과 하나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타 박물관과의 차별성이 분명한 만큼 지속적인 수집과 관리, 전시를 통하여 인천지역의 문화적 우수성을 지키겠다고 김상종 관장은 전한다. 일관 차분하고 상냥한 미소로 선사박물관의 역사적 지리적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해 보였다. 전시준비를 위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돌아보는 그에게 베스트 유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망설임도 없이 답이 돌아왔다. "이곳 박물관에 있는 모든 유물이 소중한 베스트입니다."

* 버스는 광역 1100번, 1101번, 2100번, 9801번, 9900번 시내 13번, 30번, 76번, 78번, 841번, 1002번, 308번을 이용해 원당사거리에서 하차하고 인천지하철은 귤현역, 임학역, 계산역에서 30번, 76번 버스를 이용한다.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월요일 휴관)이며 관람료는 어른 400원이며 학생은 무료이다.

문의 ☎ 440-6790 / http://museum.incheon.go.kr

인천의 선사 문화

인천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흔적이 있다. 구석기 문화층이 조사된 검단지역 외에도 문학동과 강화도에서 구석기가 발견되어 특정 지역에서 유물과 유적이 출토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서면 서해안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전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조개무지들이 형성되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거주민들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강화도, 대곡동, 문학산 일대에는 많은 수의 고인돌들이 발견돼 인천의 청동기문화를 대표하고 있다. 특히 강화도에는 2500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검단지역에서는 집터와 돌널무덤이 발견되어 인천 북부지역 청동기시대의 문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에만 있는 이색 박물관 3

한국이민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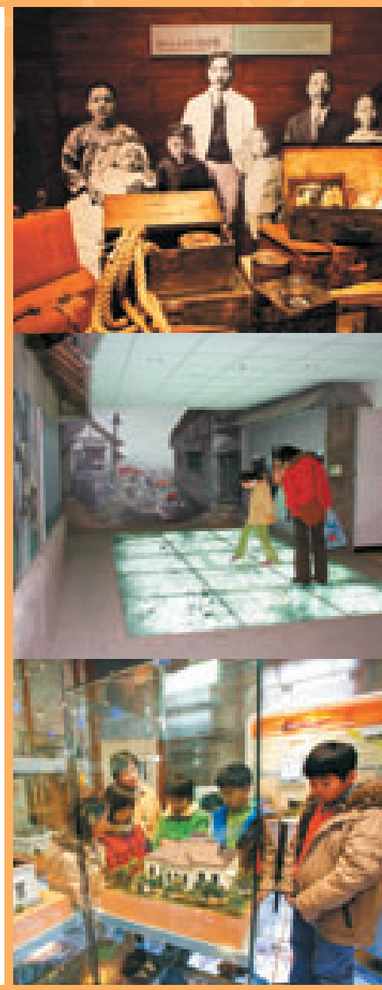
인천은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이민 출발지였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한국 이민 100여 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올해 5월 13일 중구 북성동에 문을 열었다. 지상 1·2층 규모의 박물관은 현재 4천400여 점의 이민사 관련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유물은 대부분 이민 1세대들이 사용하던 주방기기, 가구 등 생활용품과 사진 등으로 주로 미국,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지에서 수집했다. 대표 유물로는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자들이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던 번호표 방고와 대한제국 유민원에서 발행한 집조(여권) 등이 있다. 그 밖에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서 사용하던 수레, 칼, 가위 등의 작업용 공구들을 볼 수 있다. ☎ 440-4710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인천의 대표 달동네, 어쩌면 전국 대표 달동네였던 동구 송현동 '수도국산'.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옛 자취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난민들과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산동네였다. 이곳에 지난 6·70년 대 수도국산 일대 달동네의 생활상들이 생생하게 재현된 '달동네박물관'이 건립되었다. 우리나라 박물관 역사에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곳에는 연탄가게, 이발소, 솜틀집, 구멍가게에서 깜빡이는 백열전구와 성냥갑 하나까지 달동네 생활풍경을 고스란히 담아 놨다. 당시 살았던 주민들에게서 기증받았거나 전국의 고물상을 뒤져 구한 '유물'이다. ☎ 770-6131

인천근대건축전시관

인천은 구한말에 외국 문물의 보따리가 풀어졌던 개화의 관문이었다. 특히 중구 지역은 일본과 청국을 비롯, 러시아 영국 등 서구 열강의 각축장으로 국내 최대 근대 건축물들이 밀집된 곳이다. 고딕·르네상스양식 등 '거리건축박물관'을 연상시키는데 그중 (구) 일본18은행 건물을 복원해 지난 2006년에 인천근대건축전시관을 개관했다. 전시관 내부는 3개의 존으로 나뉘어져 개항 당시의 시대상황과 인천항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근대건축물을 모형으로 재현했다. 답동성당, 일본 58은행, 성공회성당, 인천우체국, 제물포구락부, 일본 제일은행, 홍예문 등이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 760-7549



자장면, '역사'가 된다

'자장면 박물관'이 자장면 발상지인 중구 선린동 차이나타운에 2010년 10월에 문을 연다. 1905년쯤 자장면을 처음으로 선보인 것으로 알려진 차이나타운 내 중국 음식점 '공화춘'(등록문화재 제246호)에 꾸며져 그 의미를 더한다. 공화춘은 지상 2층, 연면적 846㎡ 규모의 연와조 건물로 현재는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박물관에는 자장면 탄생 당시의 개항기 인천 모습이 재현된 것을 비롯해 자장면의 어원과 재료, 영양 등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자장면을 직접 만들고 시식하는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인천

2009년, 인천은 사계절 내내 특별한 감동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2009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지정한 '2009 인천방문의 해'로, 우리시는 인천만의 특별한 볼거리와 이벤트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모을 계획이다. 내년 인천에 오면 기대보다 더, 상상보다 더 큰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국제 관광도시로 Fly~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품고 있는 우리시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맨 처음 발을 딛는 의미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인천이 2009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힘차게 도약한다.

2009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다. 전 세계 도시가 한자리에 모이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인천대교와 테마파크, 관광전차 등 관광 ·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갖춰지기 때문이다. 또 내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지정한 2009 인천방문의 해로, 우리시는 아름다운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마련,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과 내국인 2천만명의 발길을 이끌 계획이다.

바다,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

관광지로서 인천의 매력은 무엇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한 시간 정도만 차를 타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다. 인심 좋은 포구 재래시장에서 파도 소리를 벗 삼아 회를 한입 가득 넣으면 바다의 낭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인천은 또 15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섬과 바다의 도시. 섬스테이를 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어부의 일상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 이 외에도 19세기 근대역사와 우리나라 유일의 차이나타운을 품고 있는 중구,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민족의 기나긴 역사가 스며 있는 강화,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화려하게 도약하는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에는 특별한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

시는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자, 지난 6월 인천방문의 해 전담여행사 30개사를 지정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 일본, 중국, 동남아, 구미주 등 해외 유명여행사 4개사와 협력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도시축전을 참관한 후 주변을 여행하는 특별 관광상품 50개를 개발하고 있다.

누들페스티벌 등 365일 축제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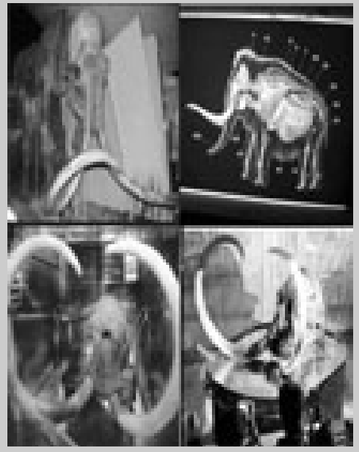
365일 인천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축제와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다. 먼저 2009년 1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는 팔미도가 해맞이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어둠을 뚫고 쏟아지는 현란한 조명과 인공바닷길, 박물관 개관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특별한 신년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어 마니산에서 열리는 인천방문의 해 성공기원 행사, 세계 각국의 누들요리를 맛볼 수 있는 누들페스티벌, 세계 6위 길이를 자랑하는 장대한 인천대교의 개통 기념식,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부분개장, 아트서커스 공연 등 인천은 365일 화려한 이벤트로 가득하다.

인천은 지금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꿈꾸며 힘찬 나래를 펴고 있다. 2009년 인천방문의 해가 밝으면 사계절이 아름다운 도시 인천으로 발걸음을 향하자. 그곳엔 상상 그 이상의 감동과 즐거움이 있다.

인천방문의 해 홍보유랑극단, 풍류

우리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유랑극단형식으로 우리나라 주요 10개 도시를 순회공연하며 2009 인천방문의 해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인천방문의 해 유랑극단 '풍류'(총감독 신종택)는 지난 10월 31일 인천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춘천, 강릉, 울산, 부산, 전라도 광주, 전주, 대전, 수원, 서울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풍류는 타악 드라마 퍼포먼스, 아트컬러 벨리댄스, 라이팅 아트, 현대무용, 팝페라 공연 등의 거리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풍류는 9개 도시 문화예술인 20명을 인천명예홍보대사로 위촉, 이들과 함께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연을 연출해 큰 박수를 받았다.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앞으로도 2009 인천방문의 해 선포식 등 색다른 이벤트를 열어 인천방문의 해와 도시축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1세기 친환경을 체험한다

환경·에너지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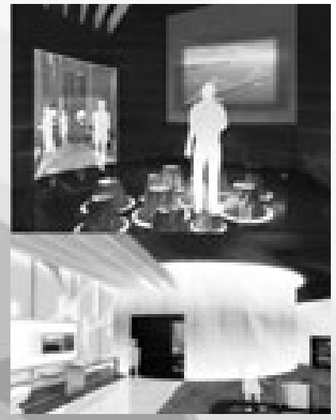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에 '딱딱한 환경 담론'은 없다. 축전에는 자연스럽게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이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하는 환경 마당의 장이 펼쳐진다.

글 · **박세훈**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 미디어홍보팀 부장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레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동물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나리오다. 그동안 '환경'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딱딱하고 지루한 이야기로 들려왔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막상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로 들어가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태도들이 많았다.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은 지구촌의 이슈인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새로운 환경정보와 에너지 체험, 이벤트, 친환경 탈거리를 마련해줌으로써 환경에 대한 거리감을 없앨 수 있는 기회다.

주행사장 안에 구성될 '환경·에너지 존'은 개방과 참여와 공유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이벤트를 통한 환경이슈에 대한 참여와 지구를 환경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친환경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환경·에너지 존'을 미리 가보자.



3D 영상 체험, 환경 · 에너지관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우리 주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환경에너지관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의 산물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폐해도 매우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구변화의 원인 등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가상해양환경 3D 영상 체험관을 통해 각종 환경 영상을 상영한다.

신이 준 선물이라고 일컫는 '자트로파'를 이용한 신에너지 생성과정과 해조류 기름 유출시연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인식하게 해준다.

전기와 자전거, 발전기, 분수 등도 자가발전을 통해 작동된다.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와 개인탄소배출 체험을 함으로써 미래의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 차원의 대응도 모색한다.

이밖에 태양에너지와 풍력을 이용한 다양한 에너지활용과 수소전지, 바이오매스 사용, 친환경 재활용 제품 전시, 그린 자동차, 미래의 개인용 자가용 등이 전시와 함께 체험이벤트로 제공된다.

환경 · 에너지관은 지구를 살리려면 정부와 기업, 개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혼신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하이브리드 가로등와 맘모스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주행사장은 바람을 이용해 밝히는 친환경 축제다. 풍력으로 작동되는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총 35대가 가동되며, 낮에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축적해 밤에 관람객 이동로를 밝히게 된다.

19.7m 높이의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현하면서 기업으로부터 협찬받아 설치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도 설치된다. 엠보싱을 한 보도블록이 장애인들을 행사장으로 안내하며 음성인식으로 행사장의 모든 행사를 '듣고 즐기게' 된다.

세계도시축전에서 단연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맘모스. 지구상에서 한손으로 셀 정도로 밖에 남아 있지 않은 맘모스가 전시된다. 맘모스는 거대한 몸집에 가장 개체수가 많았던 동물 중 하나로 번성했지만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멸됐다. 맘모스 사례는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간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준다.

전시될 맘모스는 사하공화국으로부터 직접 가져오게 되며 지난 2005년 일본 아이치박람회에서도 60일간 전시돼 수백만명에 달하는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던 바 있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 향한

인천의 힘찬 발걸음

2008년, 우리시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 준비,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등을 진행하며 힘차게 도약했다. 2008년 우리시 주요시정을 돌아보며 2009년 인천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정리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151층 인천타워 기공

지난 6월 20일 송도국제도시에서 151층 쌍둥이 빌딩 '인천타워' 건설의 첫 삽이 떠졌다.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이 지어질 인천타워는 총건축 면적 66만 여㎡에 높이 570m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인천타워 1~6층의 포디움은 쇼핑몰 · 컨벤션 등 편의시설, 7~36층은 업무용 시설, 39층~56층에는 5성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57~117층은 주거시설, 118~119층에는 전망대가, 120~147층은 콘도미니엄, 148층~151층은 레스토랑 등으로 꾸며진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그랜드 오픈

인천국제공항이 지난 2008년 6월, '2단계 그랜드 오픈'으로 세계 초일류공항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단계 사업으로 연면적 16만6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탑승동과 여객터미널, 4천m에 이르는 대형 활주로,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빠르게 연결하는 무인여객열차 스타라인(Star line)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됐다.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IT · BT 기술과 운영시스템을 적용해 최첨단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했다.

송도컨벤시아 개관

첨단 유비쿼터스 전시 · 컨벤션센터인 송도컨벤시아가 지난 10월 7일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송도컨벤시아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축면적 5만4천㎡ 규모로 최대 2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프리미어볼룸을 비롯해 각종 회의실 23실과 450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전시장 8천400㎡를 갖추었다. 또 단층 무주공법으로 건설돼 기둥이 하나도 없고 외관은 태백산맥을 형상화해 한국의 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송도 투머로우시티 기공

송도가 거대한 미래도시의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7일 '투머로우시티(Tomorrow City)' 기공식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있었다. 투머로우시티는 송도국제도시 E6-1부지에 u-City 홍보체험관, 복합환승센터, u-광장, u-Mall 등을 갖추어 3만 1천697㎡의 규모로 조성되며, 유비쿼터스 기술을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자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핵심 전시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숭의운동장 9만127㎡ 일대가 문화와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5월 7일 숭의운동장 재생사업 '숭의아레나파크'의 기공식이 있었다. 운동장은 오는 2010년까지 1천1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축구전용경기장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또 FIFA 규격에 맞는 국제적인 수준의 구장으로 지어, 우리시의 프로축구 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구장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기공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기공식이 지난 6월 12일 서구 원창동에서 있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는 총 7천500억원을 들여 서구 가정오거리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7.69㎞ 구간에 6~8차로의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 구간인 1~4공구 가운데 가정오거리에서 가정택지 구간인 2공구 1.42㎞와 청라지구 구간 4공구 2.8㎞는 지난 3월 말 착공했다. 이어 청라IC 구간 3공구 1㎞는 지난 10월에, 가정오거리 구간 1공구 2.3㎞는 내년 9월 착공해 2013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한국이민사박물관 개관

지난 6월 13일 우리시 중구 북성동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2003년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2006년 공사에 들어가 2008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이 곳의 전체 면적은 4천127㎡로 이 가운데 전시면적이 1천449㎡를 차지한다. 또 지상 1 · 2층에는 상설전시실 4개실이 있고 지하에는 수장고 · 영상실 · 강당 · 기획전시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IFEZ 아트센터 기공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트센터(IFEZ Arts Center)가 지난 9월 11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첫 삽을 떴다. 아트센터는 오는 2012년까지 송도국제도시 1 · 3 · 6공구 일대 11만2천300㎡ 부지에 문화단지 5만6천300㎡와 지원단지 5만5천900㎡로 각각 개발된다. 문화단지에는 메인콘서트홀과 예술학교, 도서관, 기숙사 등이 들어서며,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설립하는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 · 디자인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원단지는 호텔과 콘도, 프로덕션 스튜디오,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된다.

도심관광용 모노레일 착공

국내 최초의 도심관광용 모노레일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우리시는 지난 6월 27일 인천교통공사에 모노레일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 주기로 확정하고, 지난 7월 4일 모노레일 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모노레일은 1단계로 중구 인천역과 월미도간 6.26㎞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내년 7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모노레일은 인천역, 월미공원 한국전통공원지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인천항 갑문 등 5개 역을 5~10분 간격으로 순환하게 된다.

검단 신도시 확대 지정

우리시가 추가 개발을 요구해 온 검단신도시가 대형 신도시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검단신도시 주변 690만㎡를 비롯해 경기 오산 세교지구 등 수도권 2개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했다. 검단신도시 주변은 2006년 말 신도시로 지정된 검단신도시 북서쪽으로, 2006년 검단신도시 지정 당시 제외됐었다. 이후 시는 검단지역 일대 1천810만㎡를 신도시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착공

대우자동차판매㈜와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파라마운트 무비파크가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에 이번달 말 착공된다. 무비파크는 우리시가 최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사업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무비파크는 송도유원지 내 49만9천㎡의 부지에 1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상체험시설, 워터파크, 놀이기구 등을 갖춘 문화 · 휴양시설로 조성된다. 공사는 2011년 말까지 마무리해 2012년 초에 개장할 계획이며, 연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Fly Incheon News

유럽 · 중동 4개국 국제행사서 인천 투자 및 도시축전 홍보

안상수 시장이 유럽 ·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우리시에 대한 세계 각국의 투자를 이끌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아 · 태도시정상회의(APCS) 등 국제행사를 적극 홍보했다.

안 시장은 지난 11월 12일 출국해 2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집트 카이로 등 유럽과 중동 4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안 시장은 첫 방문지인 밀라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은 후 밀라노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고 국립음악원장, 다빈치박물관장 등과 면담했다.

이어 16일 쿠웨이트에서 연금기금이사장, 투자청장 등과 만나 투자 유치에 대해 논한 뒤, 18일과 19일 두바이에서 열린 '도시 수변공간 콘퍼런스(Urban Waterfront Conference)' 에 참석해 주제발표와 축사를 진행했다.

카이로에서는 제2차 한 · 중동포럼에 참석하고 이어 아랍연맹 사무총장, 이슬람은행 총재, 카이로 시장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안 시장의 이번 외교순방을 통해 유럽 · 중동 국가들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APCS 등 우리시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할 것과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3

2009년 APCS 등 국제회의 풍성

내년 8월부터 10월까지 인천에서 아 · 태도시정상회의(APCS), 2009세계지식포럼, 세계조경가협회 아태지역 총회, 세계도시물포럼, 아시아컨벤션 CEO 포럼 등 모두 17개의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특히 내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APCS는 '창조적인 도시 개발' 을 주제로 미래도시의 기능적 공간, 자원 재활용과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 시스템 모색, 문화적 다양성이 도시개발과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3252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관광단지 인근 해상 공유수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무의도 앞 5km 해상 공유수면에 조성되며, 총 5천여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세워진다. 또 발전시설의 규모는 총 99MW(3MW급 발전기 33기)이며, 수심 20~30m에 파일을 박아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높이는 80m다. 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민간업체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말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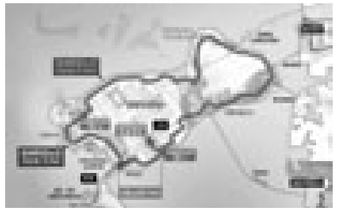
시내 8곳에 생태통로 조성

우리시는 2011년까지 시내 8곳에 다리와 생태통로를 이용해 'S자 녹지축' 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먼저 내년 하반기에 주안산길(만월산~만수산)에 철골구조물로 만든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비류길(문학산~청량산)에는 보도육교를 놓을 계획이다. 또 2010년 원적산길(원적산~함봉산) 구간에 터널을 만들어 녹지축을 연결하고 2011년에는 장수천과 앵고개길, 동막역 등에 대한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와 함께 내년에 3억원을 들여 시내 47곳에 습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의 | 종합건설본부 ☎ 440-5212

플라이 인천 뉴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착공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인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이 내년 2월 공사에 들어간다. 우리시는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시범노선을 올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이다. 시범노선은 공항교통센터~국제업무지구 1단지~용유역을 잇는 6.1㎞ 구간으로 정거장 6개와 차량기지가 설치된다. 시범노선은 2012년 완공되며 시험운행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 440-3872

자원봉사자, 2014년 100만 목표

우리시는 2014년까지 자원봉사자 100만명을 확보, 세계 10대 자원봉사 선진도시로 진입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원봉사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 자원봉사자의 날 및 주간 기념사업, 박람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찾아 쓰는 마일리지제를 비롯해 현재 실행중인 자원봉사 인정 · 보상제도를 개선, 수혜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현재 44개소인 동 자원봉사센터를 143개 읍 · 면 · 동으로 확대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302

생태 · 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우리시는 계양산 남 · 북사면과 무의도 호룡곡산 등 3개 지역을 생태 · 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계양산 목상동은 습지 120㎡를 핵심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인근 1천115㎡와 3천535㎡ 지역을 각각 완충 · 전이 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환경부 보호종인 식충식물 통발, 이삭귀개, 땅귀개 등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 환경부 · 인천시 지정 보호 동식물 서식지인 계양산 남사면은 핵심관리 지역 2천660㎡ 등 5만4천640㎡를 생태 · 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중구 무의도 호룡곡산 습지 6천825㎡를 핵심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인근 8만7천117㎡와 29만1천904㎡를 각각 완충 · 전이 지역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 440-3511

구도심 도시정비구역 추가지정

우리시의 구도심 57곳의 450만㎡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용역을 거쳐 내년 7월경 사업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검토되는 곳은 중구 6곳, 동구 2곳, 남구 10곳, 부평구 17곳, 남동구 10곳, 계양구 6곳, 서구 5곳, 연수구 1곳 등이다. 이들 지역이 정비대상지역으로 정해지면 주민공람, 국토해양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내년 7월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게 된다. 시는 이들 중 주택노후화가 심한 31곳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26곳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재개발할 방침이다.

문의 | 시 도시재생과 ☎ 440-3244

공공도서관 30곳 신설

우리시에 공공도서관이 많이 들어선다. 정부가 인구 6만 명당 도서관 1곳을 짓도록 권장한 데 따라, 시는 오는 2018년까지 도서관 30곳을 새로 지어 모두 4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2013년까지 3천300㎡ 이상 대규모 도서관과 그 이하 중규모 도서관 10곳, 990㎡ 미만 소규모 도서관 4곳 등 15개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165㎡ 내외 작은 도서관 13곳을 늘릴 방침이다. 이들 도서관에는 1곳당 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며 서가와 열람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도서 구입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된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5844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4년 개통

우리시는 2018년까지 2단계로 나눠 개통하기로 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14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공원~서구 공촌사거리 19.4Km 19개역 구간을 개통하고, 2018년까지 공촌사거리~오류지구 9.8Km 8개역 구간을 완공하는 변경안을 내놓았다.

문의 | 도시철도건설본부 ☎ 451-2782

Fly Incheon News

경제자유구역에 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세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시는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되면서 취득 · 등록 · 재산세 중과가 완화되고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산업단지를 각각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별 유치 업종은 송도가 첨단산업, 청라는 자동차산업, 영종하늘도시는 항공우주산업 등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내년 중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중동문화원, 글로벌센터로 개편

중동문화원이 올해 말 (가칭)인천글로벌센터로 새롭게 확대, 개편된다. 중동문화원은 지난해 10월 개원해 중동 문화 전시 및 강좌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문화를 한데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 중동문화원을 인천글로벌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인천글로벌센터는 향후 외국인 대상의 상담데스크와 팸투어, 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인 다문화서비스를 제공케 된다.

문의 | 인천국제교류센터 ☎ 451-1711

내년 송도 등에 호텔 5개 개장

내년에 열릴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대비해 내년 6, 7월 송도국제도시 등지에 호텔 5개가 새롭게 문을 연다. 도시축전조직위원회는 도시축전 기간에 인천시내 1일 평균 숙박인원을 내국인 1만36명, 외국인 1천875명, 행사종사자 622명 등 총 1만2천533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이 머물 숙박시설은 호텔 38개, 모텔 460개 등으로 내년 도시축전 내방객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도시축전조직위원회 ☎ 440-7800

인천공항 유수지 워터파크 조성

인천국제공항의 유수지가 경정 훈련장과 수상레저 시설을 갖춘 워터파크로 조성된다. 지난 1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남측 유수지를 워터파크로 개발하는 사업의 착공식이 있었다. 워터파크 조성사업은 유수지 40만㎡와 주변 용지 9만7천㎡를 활용해 2010년 하반기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또 워터파크가 완공되면 F1 파워보트 그랑프리 등 국제적인 모터보트 대회를 유치해 수상스포츠의 중심지로 키울 방침이다.

문의 | 인천국제공항공사 ☎ 1577-2600

2009 대한민국축제박람회 개최

대한민국축제박람회가 내년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시에서 열린다. 2009 대한민국축제박람회는 '축제, 문화강국의 중심에 서다' 란 주제로 내년 5월 1일부터 5월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외 단체 축제체험관, 참가단체 대표공연, 심포지움, 전통혼례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열린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4022

수도권매립지에 에너지 종합타운

수도권매립지가 신재생에너지 종합센터로 재조성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쓰레기매립지 1천980만㎡에 총 1조7천400억원을 들여 수도권 환경 · 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에너지 종합타운에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 음식물쓰레기 폐수활용시설 등이 설치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를 위해 먼저 2012년까지 114만㎡ 부지에 13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환경 · 에너지 종합타운이 완공되면, 환경산업, 학습 및 기술전파, 관광명소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560-9300

영종도 경제특별시 본격 추진

우리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검토 중이던 영종도 경제특별도시 조성계획이 범국가 차원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시는 영종도의 무관세, 무비자, 금융거래자유화, 노동시장 개방 등 경제특별도시 조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인천시의회와 국회, 정부 차원의 공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경제특별도시로 조성하면, 50조원이 넘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물류허브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플라이 인천 뉴스

영종도~신도~강화 교량 추진

우리시는 2014년까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옹진군 신도를 거쳐 강화도 남단을 연결하는 길이 11㎞의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노선 결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 내로 노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량과 도로 건설을 위한 시행방법과 재원 조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전에 건설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교량이 완공되면 도서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종합건설본부 ☎ 440-5372

송도 앞바다, 인공섬 건설 추진

경제자유구역청은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단계에서 송도국제도시 6 · 8공구 해변에서 인천대교 방향으로 1㎞ 거리의 해상에 인공섬을 조성키로 했다. 경제청은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섬을 만든 뒤 바다와 접한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경제청은 먼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인공섬의 크기를 정하고,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교차지점에 섬의 위치를 정한 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시 우선 작업장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겨울철 취약계층 본격 지원

우리시가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총 198억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가운데 위기가정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35억7천600만원으로 생계와 의료, 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현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143억3천60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1만5천 세대에게 곡식을 지원키로 했다. 이어 아동급식지원에 18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월동난방비로 3만9천281세대에 에너지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302

웰컴 투 인천

중국 천진시 대표단 방문

천진시의 황싱궈 시장 일행이 우리시와 천진시의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우리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두 도시의 대표는 면담을 통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아 · 태도시정상회의(APCS)에 천진시가 참여하고, 천진시 다보스포럼에 우리시가 참석하는 등 두 도시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국 트렌트대 부총장 방문

영국 노팅햄 트렌트 대학 사이먼 루이스 부총장 일행이 지난 11월 5일 시청을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사이먼 루이스 부총장 일행은 안 시장은 이날 두 도시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도시의 대표는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디자인아카데미 건립을 비롯해 도시색채 등 도시경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베트남 하이퐁시, 도시축전 참가

베트남 하이퐁시의 진 꽝스우 시장 일행이 지난 10월 24일 우리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하고 도시축전 참가협약을 맺었다. 이에 하이퐁시는 도시축전 도시관에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 전시하고 베트남 민속전통공연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진 꽝스우 시장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통해 하이퐁시 고유의 문화와 도시 발전상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안 시장은 "우리시와 하이퐁시는 자매도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축전에서 하이퐁시를 적극 홍보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연해주상의소장 방문

브레즈네프 러시아 연해주 상공회의소장 일행이 지난 11월 5일 시청을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브레즈네프 소장은 "연해주 지역의 기업들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연해주 상의가 설명회 자리를 주선하겠다"며 도시축전의 홍보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브레즈네프 소장은 인천에서 연해주 기업들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한인경제인 130명 방문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130여 한인경제인들이 지난 10월 31일 우리시를 방문했다. 안상수 시장은 이날 한인경제인들에게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제8차 세계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비전을 소개하며 우리시와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신촌 독수리, 송도에 새 둥지 튼다

연세대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사업이 지난 11월 26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첫 삽을 떴다. 이제, 2012년 송도국제도시에 세계 유수 대학과 연구소들이 몰려든 세계 최고의 학술단지가 조성된다.

2012년 송도국제도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단지가 조성된다. '연세대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사업'이 지난 11월 26일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은 안상수 시장과 고진섭 시의회 의장, 방우영 연세대 이사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황우여 · 송영길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연세대가 송도 국제화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곳에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들이 세워지도록 연세대가 선봉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화복합단지는 61만4천670㎡ 규모에 첨단연구와 국제화 분야의 일부 학과와 연구소들을 유치해 첨단 분야로 특성화된 캠퍼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적인 산 · 학 · 연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이다. 단지에는 미국의 UC버클리대 등 해외 유명 대학들의 분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미국 MD앤더슨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동아시아센터를 비롯해 연세대와의 공동 연구센터가 들어서는 연구 · 개발(R&D) 캠퍼스가 만들어진다. 이어 복합문화센터와 어학당, 체육관, 야구장, 축구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송도캠퍼스는 2010년 3월 부분 개교한 뒤 2012년 12월에 전체적으로 다시 문을 열 방침이다. 캠퍼스가 완전 개교하면 내국인 학생 3천명, 외국인 학생 1천명, 교직원 500명, 연구원 500명 등 모두 5천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

송도 국제화복합단지는 산 · 학 · 연이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국제 학술연구단지의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세대는 이를 위해 현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 한국분소,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연구원 등의 설치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 UC버클리대, 일본 게이오대, 영국 워릭대 등의 동아시아 분교 유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 자장면 박물관 조성

2010년 중구 선린동 인천차이나타운에 자장면 박물관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다. 우리시와 중구는 자장면의 발상지로 알려진 옛 중국음식점 공화춘(등록문화재 제246호) 건물을 매입,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물관에는 자장면 문화가 전시되고 관람객 체험시설이 마련된다.

문의 | 중구청 ☎ 760-7114

동구 배다리, 전통공예상가로

동구 금곡동 배다리지하상가가 내년 초까지 전통공예상가로 조성된다. 시는 연건축면적 1천600여㎡의 배다리지하상가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전통공예 체험장과 교육장, 판매장, 전시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달 시작해 내년 1월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문의 | 동구청 ☎ 761-0151

남구 중국 천진시 대표단 방문

남구와 우호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천진시의 당고구정부 일행이 지난 11월 10일 남구를 방문, 이영수 구청장을 예방했다. 이번 방문은 당고구 지역을 관광레저구역으로 조성키 위한 선진관광산업 벤치마킹으로, 당고구 대표단은 방문기간 동안 남구에 이어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시찰했다.

문의 | 남구청 ☎ 887-1011

연수구 옥골구역 도시개발 본격화

연수구 옥련동 140일대 옥골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우리시는 지난 11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심지 낙후지역인 옥골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가결했다. 이에 옥골구역에 총 29만8천187㎡부지에 2천124세대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문의 | 연수구청 ☎ 817-1011

남동구 로데오, 걷기 좋은 거리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변이 내년 말까지 보행우선구역으로 조성된다. 우리시는 이 지역이 국토해양부의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내년 연말까지 19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도 확장과 보행자 휴게공간 조성, 보행 광장 정비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남동구청 ☎ 466-3811

부평구 굴포천, 자연형 하천으로

부평구에 있는 굴포천 6㎞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가 착공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우리시는 굴포천에 인근공원과 연계한 진입계단과 도로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하천 생태계를 관찰 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마련해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문의 | 부평구청 ☎ 527-5911

계양구 공시지가 산정 최우수기관

계양구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에 따른 현지 지도 · 점검 결과 인천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각 조사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한편, '표준지 조사계획 수립' 등의 수범사례를 추진한 공로가 인정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문의 | 계양구청 ☎ 551-5701

서구 환경자문협의회 구성

서구는 환경자문기구인 '환경자문협의회의'를 위촉하고 그 첫 번째 정기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향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 분야의 지역현안 및 분쟁에 관한 사항, 각종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문의 | 서구청 ☎ 562-5301

강화군 전등사 주변 소나무 숲 조성

우리시는 내년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강화도 전등사 주변 소나무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 4월부터 연말까지 전등사 주변에 있는 우량 소나무숲 10㏊ 숲을 가꾸고 토양을 개량하며, 시비 작업 등을 진행키로 했다.

문의 | 강화군청 ☎ 930-3114

옹진군 특정도서 생태계 보전 강화

옹진군이 특정도서로 지정된 군 내 18개 섬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앞장선다. 군은 지난 달부터 서만도, 각흘도 등 지역 내 특정도서에서 자연생태계 및 지형 변화, 환경오염 여부 등의 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그물 및 폐어구의 방치와 오물 투척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문의 | 옹진군청 ☎ 899-2114

교육청소식

학교도서관대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제6회 학교도서관대회'가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전국의 우수 학교도서관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에는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위원장, 각 시 · 도의 교육감을 비롯해 교사, 학생 등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각 시 · 도 교육청의 우수 사례 전시회가 열리고 책표지 퍼즐 만들기, 훈민정음 탁본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 습관 형성, 책 읽는 학교 만들기, 도서관의 효율적 책 구성방안 등 각종 학교도서관 정책과 독서진흥에 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문의 | 인천시교육청 홍보팀 ☎ 420-8225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News

제170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진행

제170회 인천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9~11일에는 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달 15일부터 4일간 조례안과 청원 등을 처리한 뒤 19일 본회를 끝으로 2008년 의정활동을 마무리짓는다.

칭찬지도위원회 출범

사단법인 선행칭찬운동본부가 지난 11월 18일 인천시 칭찬지도위원회를 공시, 출범했다. 인천시 칭찬지도위원회는 '1050 칭찬 캠페인'과 칭찬 강연, 칭찬 공개 수업 등을 추진하고, 인천시교육청과 연계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 칭찬위원회는 제1대 회장으로 김용근 의원을, 부회장에는 박승희, 정종섭 의원을 선출했다. 또 김성숙, 김소림, 김용재, 문희출, 박희경, 성용기, 오홍철, 유천호, 윤지상, 이재호, 조남휘, 최병덕, 한도섭, 허식 의원 등 17명으로 칭찬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수도 요금 인하 결의문 채택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월 28일 시와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요금 인하 주장과 관련, '광역상수도 원수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용수공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획일화된 물이용 체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원수비를 시민에게 반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밀라노시의회와 우호협력 협정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월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우호교류 협정은 '밀라노 디자인 시티 협약 조인식'에 참석한 만후레디 팔메리 밀라노시의회의장이 고진섭 의장에게 두 도시간의 우호협력 체결의사를 적극 밝히면서 이뤄졌다. 협정서에는 두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투자와 개발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밀라노 디자인 시티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두 의회가 적극 지원하며,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밀라노 엑스포에 상호협력한다. 또 2009년 5월 밀라노시의회가 인천을 방문하고, 2010년 인천시의회가 밀라노를 답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다.

해안순환도로 공사현장 등 시찰

산업위원회(위원장 한도섭)는 지난 10월 24일 강화군을 방문, 주민들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사업 및 시설의 추진현황을 살펴봤다. 이날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인 강화 남단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 해안순환도로 3공구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에게 공사가 친환경적으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입법정책 자료집 발간

인천시의회는 입법정책 자료집을 발간,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한 입법정책 자료집에는 지난 3개월간 타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를 포함해 지방자치법 관련 사항 등을 조사 · 분석해 정리한 자료와 정보가 실려 있다. 또 3 · 4분기에 제정된 타 시 · 도 조례 9건의 주요내용과 특이 조례 15건을 소개해 우리시 조례와의 비교 · 검토를 통해 우수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집이 향후 조례 제 · 개정 발의와 심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급식 자원봉사활동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지상)는 지난 11월 19일 서구 연희동사무소에서 불우노인 300여 명에게 사랑의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원들은 직접 조리한 자장면을 노인들에게 배급하며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시간을 보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위 구성

인천시의회는 박승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신 · 구도심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박승희 의원을, 제1간사와 제2간사에 최만용 의원과 허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시 집행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박승희 위원장은 "의원들의 역량을 집결해 시와 시민들의 상호 이해와 협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카자흐스탄 심장병아동 격려

기획행정위원회 윤지상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1월 6일 길병원 심장센터를 방문, 우리시와 길병원이 공동으로 심장수술을 지원한 카자흐스탄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우리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지원사업을 인천국제교류센터에 위탁, 추진하고 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에 수술을 받은 어린이들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우리시 대표단이 선별한 어린이 5명으로, 수술 후 회복기간을 거쳐 지난 11월 10일 귀국했다.

문의 | 인천시의회 홍보팀 ☎ 440-6052

모닝 인터뷰 |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

인천시의회가 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이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5대 2기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으로부터 인천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마음속 포부를 들어본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앞장 서 겠습니다"

신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인천시의 건설교통위원장 책무를 맡게 돼 사명감이 큽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검단신도시 개발, 도시재정비사업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상, 이주대책 등의 문제로 고통 받지 않고, 각종 개발이 내실이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고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것 인가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각종 대형개발사업들을 수시 점검해 집중관리하고, 시에 대해 통제 · 감시의 기능과 함께 협력체재를 유지하겠습니다. 또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고용과 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노선의 조정과 환승체계의 개선, 도시철도 확충 등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인천이 세계 속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인의식을 갖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80일간의 세계도시축전 든든한 후원자

미래 첨단기술과 세계 문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2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인천시의회도 도시축전을 홍보하고 세계 도시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 인천은 세계도시축전으로 화려하게 빛난다. 미래 첨단기술과 전 세계 문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 불과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오세아니아 주요도시의 외교순방을 통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널리 알리고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지상 위원장을 비롯해 김소림, 김용재, 유천호, 이근학, 이상철, 조남휘 의원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시 등을 방문,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를 홍보하고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의원들은 브리즈번시 캠벨 뉴먼 시장을 예방,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아·태도시정상회의에 많은 도시와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브리즈번 시장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자매도시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시를 포함한 많은 도시에 축전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겠다고 답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브리즈번시의회 아만다 쿠퍼 의원과 놈 윈담 의원, 이안 클러그 마케팅협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리셉션에서 도시축전 홍보 영상물을 상영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시의원들은 또 시드니 근교 스트라스필드시를 방문해 호주 최초의 한국인 시장으로 선출된 권기범시장을 예방, 도시축전을 홍보하고 아·태도시정상회의 참가의향서를 전달했다. 이어 뉴캐슬대학과 인천대학간의 교류와 두 도시간의 어학연수 등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이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를 방문해 세계도시축전과 아·태도시정상회의 초청의사를 전달하고 시 관계자로부터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한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외교순방 외에도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개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기간에 개최지인 여수시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왔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관심을 놓지 않고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AG 주경기장, 새로 짓는 게 '정답'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OCA와 약속한 적정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주경기장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OCA가 요구하는 수용인원은 최소 7만명으로 명문화(입찰안내서 : The desired capacity is a minimum of 10,000 spectators for the Winter Asian Games and 70,000 spectators for the Asian Games) 되어있다. 문학경기장의 좌석수는 4만8천590석으로 OCA가 요구하는 수용좌석에 2만석이 부족해 개·폐회식을 위한 수용인원 규모 등 제반 규정에 맞지 않다. 이 같은 우리시의 신설 요구에 문체부는 문학경기장의 2만석 증축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문학경기장 증축은 이런 점에서 부적합

문학경기장을 2만석 증축할 때 1만2천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관람석 증축으로 인해 배후공간과 통행로가 잠식된다. 이로 인해 원활한 개·폐회식을 위한 진·출입구가 부족해져 행사요원의 신속한 진·출입이 곤란하고 무엇보다 재난·재해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진다. 문학경기장 리모델링은 비경제적이다. 증축 소요비용은 리모델링 1천630억원, 설계비용 130억원 등 1천760억원이 소요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천250억원 계상).

■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우리시는 주경기장을 체육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북부권역에 신축할 계획이다. 고정석 3만, 가변석 4만 규모의 7만석의 신개념 주경기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주경기장은 11만석(고정 8만5천, 가변 2만5천), 2012년 런던올림픽 주경기장은 8만석(고정 2만5천, 가변 5만5천) 규모이다. 서구 지역에 신축하는 것과 문학경기장을 증축하는 것을 비교할 때 국비 88억원의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개폐회식 시너지 효과와 인천 북부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을 하나 더 확보하는 등 경제적 가치는 충분하다.

■ 사후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주경기장은 설계단계부터 수익시설 배치로 흑자운영을 도모한다. 판매시설 및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수익시설을 유치하여 연간 79억원의 흑자를 예상한다. 주경기장은 스포츠와 각종 공연 프로그램을 묶어 연중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다. LA 다운타운의 STAPLES Center 등 국내·외에 성공적인 모델을 벤치마킹해 연중무휴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종일 정무부시장은 지난 11월 14일 경기장건설계획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경기장으로 문학경기장의 부적합 이유를 비롯해 주경기장의 신축필요성, 주경기장의 흑자운영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홍 부시장은 서구 주경기장은 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합리화로 연간 최소 79억원의 흑자가 가능하다고 밝힌 뒤 4천460억원의 재원은 주변지역개발 이익 2천408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투입되는 국·시비는 2천52억원으로 줄어 문학경기장의 리모델링보다 더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라경제구역와 검단신도시, 계양구, 서구 등 인천 북부권에 거주하는 150여 만 시민을 위한 종합경기장 확보는 불균형 체육시설 완화와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절대적이라며 정부가 주경기장 신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의 도시들과 손잡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는,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으며 세계 속에 인천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이창구 행정부시장의 카르타헤나와 밴쿠버 방문 소식을 전한다.

역사 속에서 핀 특별한 우정

지난 11월 1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Cartagena)시 해군박물관에서 카르타헤나 '한국전 참전기념비'의 제막식이 있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 당시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참전한 나라로, 지상군 1개대대 5천100명과 함정 1척을 파견해 모두 213명이 전사하고 448명이 부상당했다. 이번 제막식에는 이창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후디쓰 피네오(Judith Pinedo Florez) 카르타헤나시장, 콜롬비아 외무부 장관, 참전용사, 현지교민 등이 참석했다. 기념비는 길이 4미터, 높이 2.5미터 규모에 거북선 모형으로, 기념비가 설치된 카르타헤나 항구는 1951년 11월 1일 한국전에 참전하는 군인을 태운 파딜라(Padilla)호가 처음 출항한 항구다.

카르타헤나시는 이번 참전기념비 준공을 기념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한국주간'으로 정하고, 지난 10월 30일 우리시와 자매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우호증진을 약속했다.

축전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협력

한편 이 부시장은 카르타헤나시와의 자매결연에 이어 지난 11월 4일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시를 방문해 우리시의 홍보활동을 벌였다. 밴쿠버는 세계 4대 미항도시 중의 하나로 교류를 통해 어학연수, 21세기형 도시개발, 관광·문화·체육 교류 등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다. 이 부시장은 샘 설리반(Sam Sullivan) 밴쿠버 시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두 도시의 자매결연 및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 부시장은 "내년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축전이 밴쿠버가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 등 도시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도시축전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에 샘 설리반 밴쿠버 시장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서로 협력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답했다.

선녀님들, 뒤를 조심해요!

공룡 한 마리가 칠선녀를 덮치려는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네요. 사실 공룡은 모형이랍니다. 몇 년 전 강화고인돌 축제 때 찍은 사진으로, 칠선녀들이 행사 후 공룡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원경 | 남구 주안6동

조각상이 된 동생

송도 해돋이공원에서 잠깐 엄마와 아빠가 자리를 비운사이, 조각공원 한곳에 조각상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낑낑거리며 동생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찰칵~ 마치 조각상이 된 듯한 동생의 모습에 재밌어한 나와는 달리 동생은 무서웠는지 표정이 말이 아니다.

서정욱 | 부평구 산곡동

여인들의 야구사랑

'야구시합하는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하루종일 야구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남편과 어린 딸을 데리고 문학경기장으로 고고~ 그래서인지 다른 노래는 몰라도 연안부두만 나오면 춤추고 노래하는 귀여운 우리 딸. 널 야구 선수로 키우고 싶구나!

정성미 | 남구 주안1동

충~성!

추운날씨에 만월지구대를 지키는 3김 순경님들! 빵을 보이며 "김순경님~ 배고프면 이거 먹어요!"했더니 냉큼 한입을 베어 물니다. 속았지롱! 사실 모형 빵이랍니다. CF 를 노리며 한~컷!

이순정 | 남동구 만수4동

이 안에서 무슨 소리가?

과학자가 꿈인 아들이 국립생물자연관박물관에 설치된 매미 조형물에 앉아, 매미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더니 금세 웃네요. 그리고 하는 말 "이 안에 진짜 매미가 살고 있나봐요!"

이광기 | 천안시 백석동

우리집 귀여운 허수아비

들판에는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우리 집에는 신문지로 만든 예쁜 허수아비가… 아이들아 사랑해 아주 많이 많이~

서정욱 | 부평구 산곡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검약의 미덕 속에 꽃핀

풍요의 도시 취리히

매년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살기 좋은 도시들은 조금씩 순위를 달리하고 있다. 국제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방송과 신문은 물론이고 잡지, 하물며 신용카드회사에서 발표하는 순위까지. 자타가 인정하는 명품도시라 할지라도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발표와 상관없이 굳건하게 명품도시로서 위치를 지키는 곳이 있다. 바로 스위스 최대 도시 취리히(Zurich)다.

글 · 사진 **이형준** 〈유럽동화마을여행〉 저자

1

엽서 속 풍경이 고스란히

작은 영세중립국이면서도 최첨단 정밀공업부터 서비스산업까지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스위스. 지구촌 최고의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붉은 색 스위스패스포드를 소유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곳이 취리히(Zurich)다.

도시 관문인 중앙역에서 세계적인 은행들이 밀집해 있는 반호프 거리에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페스탈로치 동상이 세워진 공원이 있다. 페스탈로치 공원으로 불리는 이 곳은 규모로 따지면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 파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스위스 최대도시의 한 가운데 있는 공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다.

또 나지막한 빌딩 사이로 이어지는 반호프 거리를 달리는 교통수단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럽의 여느 도시처럼 전차인 트램과 자동차, 자전거이다. 그리고 트램과 어우러져 반호프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가운데 자가용을 제외한 전차와 대형버스는 모두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교통수단이다.

예술과 문화가 쉼 없이 흐르는 곳

취리히 반호프 거리를 걷다보면 수시로 접하는 것이 작은 공간을 이용해 설치해 놓은 다양한 예술품과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공연을 펼치는 거리의 예술가들이다. 거리 자체가 공연장으로 탈바꿈하는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거리에서 공연을 펼치는 예술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취리히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연장이자 전시장이다. 스위스 국립박물관과 취리히 미술관 등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16곳에 달하는 취리히이지만, 시민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흥미로운 문화를 수시로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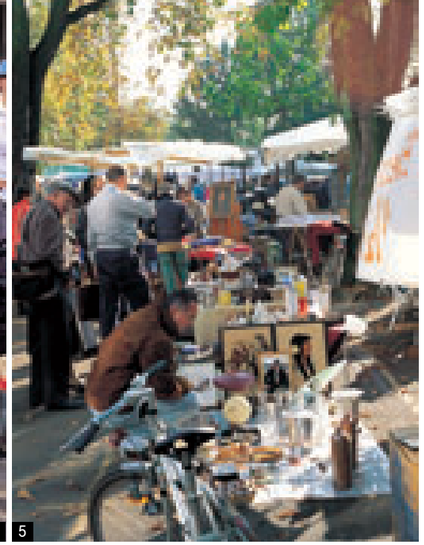
로마, 파리, 베를린과 더불어 서유럽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취리히를 상징하는 문화로는 도심의 거리와 호수에서 벌어지는 취리히축제와 공공장소의 벽을 작업장으로 활용해 제작해 놓은 거리의 벽화다. 유럽 3대 거리축제로 알려진 취리히축제는 반호프 거리를 중심으로 도심 거리 곳곳에서 펼쳐진다. 취리히축제는 시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보기 드문 축제다. 도심 거리와 기차역, 관공서 벽에 그려 놓은 수많은 벽화 역시 특정한 화가들이 제작한 작품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사전에 허락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 활용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시설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2

1. 자그마한 빌딩과 건물들이 어우러진 취리히 전경
2. 스위스 최고의 명소 가운데 하나인 융프라우 지역에서 아이들이 산을 배경으로 스키를 즐기는 모습
3. 취리히 골목의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로, 시는 시민들에게 벽을 그림을 그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3

4


5

검소의 미덕을 갖춘 사람들

취리히는 또한 세계적인 금융허브이자 초호화 상품인 시계를 비롯해, 발리 같은 명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풍요의 도시다. 하지만 이것이 취리히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이다. 반호프 거리와 취리히 호수가 만나는 지점에는 뷔르클리 광장이 있다. 평일에는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곤 하는데, 토요일이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햇살이 취리히 호수에 비추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이면 어김없이 자동차에 온갖 물건을 가득 채운 상인들과 시민들이 모여든다. 물건을 거래하는 장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풍물시장에 도착하는 상인들은 저마다 좋은 자리를 점유하기 위해 손과 발을 바쁘게 움직인다. 저마다 원하는 위치를 선점한 상인과 시민들은 각기 판매할 물건을 진열대 혹은 땅바닥에 늘어놓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아 모두 언급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취리히 풍물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던 생활용품이 주를 이룬다. 거래하는 물품 중에는 멋있어 보이는 그림과 앙증스러운 제품도 간혹 눈에 띄지만 대다수는 오래된 가구와 식기를 비롯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용품이다. 풍물시장은 일반 상점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취리히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식기류와 은제품을 비롯한 일상적인 생활용품은 신상품의 20~30% 수준이면 구입할 수 있다. 물론 오래되고 희귀한 가구와 생활용품의 경우 신제품에 호가하는 가격으로도 간혹 거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아주 미비하다.

유럽의 동물시장에서는 상인이 제시한 가격에서 30~40%를 깎아 구입할 수 있지만 취리히 풍물시장은 사정이 좀 다르다.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처음 상인이 제시하는 가격에서 5~10% 정도 깎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면 성공한 셈이다. 그 이유인즉, 세계 최고의 신용사회를 자랑하는 나라답게 비록 가격표가 미 부착된 제품이지만 정찰제에 준하는 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매력 때문인지 멋진 신사복에 서류가방을 든 신사부터 가정주부와 청소년 관광객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취리히 풍물시장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아무리 저렴한 물건이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만 구입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시민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부국이 된 이면에는 부지런하고 근검절약 하는 생활습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국에서는 이런 시민들이 열망을 파악해 도시에 크고 작은 광장과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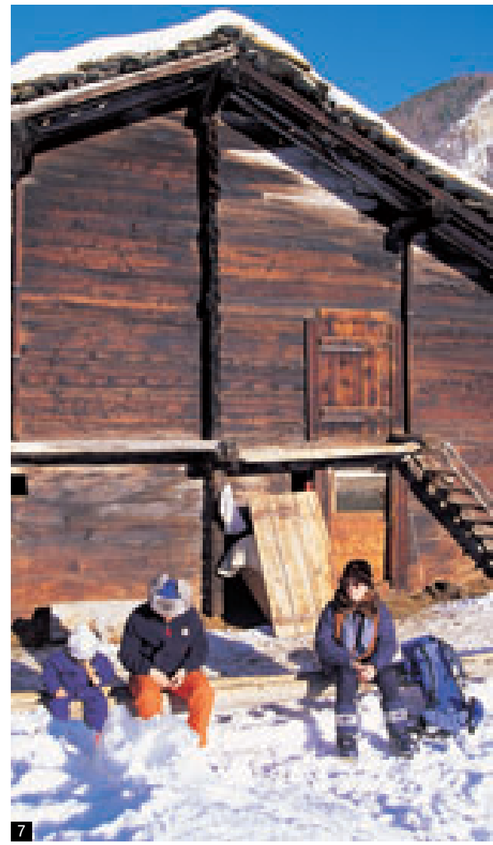
6

명품도시 중에 명품도시

취리히는 도시 자체가 거대한 공원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사계절 다양한 스포츠와 이벤트가 개최되는 호수를 비롯해 각 지역마다 크고 작은 녹색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도심에서 트래킹을 즐기거나 스키를 탈 수는 없다. 하지만 서울이나 도쿄처럼 장시간을 투자해 교외로 나갈 필요가 없다.

취리히 중앙역이나 도심에서 기차와 전차를 이용하여 불과 20~30분만 이동하면 매혹적인 자연을 만날 수 있다. 이 곳은 곧 거대한 야외공원이자 휴양지와 같다. 연중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과 호수, 들판이 어우러진 도시 외곽은 왜 취리히를 명품도시라고 말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취리히 시민들 가운데는 엄청난 부호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민들도 꽤 많다. 하지만 이런 시민들의 터전인 도시 외곽은 공해로부터 멀리 벗어난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취리히를 명품도시 가운데 명품도시로 꼽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도시 전체에 잘 갖추어진 교육시설과 창의력이 넘치는 고급 인력 등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단돈 1~2프랑을 절약하기 위해 물건을 꼼꼼히 살펴는 시민들과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취리히는 그저 평범한 부자도시에 머물렀을 것이다.


7

8

4.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와 가던 길을 멈추고 감상하는 시민과 관광객들
5. 취리히 풍물시장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을 고르는 시민
6. 취리히 호수를 따라 자리한 고풍스러운 취리히
7. 취리히 인근의 산록에 조성되어 있는 농가주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
8. 모든 매체에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인정하는 취리히 도심과 호수
9. 취리히 거리에 설치해 놓은 조각품으로, 취리히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9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모스트리필하모닉 송년음악회

모스트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MPO)는 클래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오케스트라이다. 창단 이후 성악가 조수미, 신영옥, 쥬젭페 쟈코미니, 요시 카즈메라 등과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그리고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등과 왕성한 협연을 하였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양기영, 테너 강무림, 가수 유열, 뮤지컬가수 김소현, 박완 등과 함께 화려한 송년무대를 꾸민다.

일시 _ 12월 30일(화) 오후 7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티켓 _ 전석 무료(1인 4매)
문의 _ ☎ 777-9140~8 www.iecs.go.kr

즉흥 연극 꿈과 희망

극단 목요일오후한시가 선보이는 '꿈의 탐험가들'은 관객들의 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는 즉흥 연극이다. 연극의 주인공은 관객으로, 관객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표현해낸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어릴 때 꿈과 지금의 꿈, 남다른 꿈, 큰 꿈. 당신의 가슴에 품은 꿈이야기를 극단 목요일 오후한시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_ 12월 12일(금) 오후 7시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전석 1,500원
문의 _ ☎ 505-5995

캐릭터뮤지컬 파워레인저 와일드스피릿

이번 뮤지컬은 TV드라마에 출연한 무술팀이 직접 무술을 지도해 화려한 무술의 향연 속에서 열정과 파워를 느낄 수 있다.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4m에 달하는 크기의 로봇이 출연하고, 실제 드라마 촬영에 썼던 의상과 소품들을 사용해 생동감이 있다.

일시 _ 12월 24(수), 25(목)
24일(수) 오전 11시 오후 4시 30분 7시 30분
25일(목) 오전 11시 오후 3시 30분 4시
장소 _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층(R석) 30,000원 2층(S석) 25,000원
문의 _ ☎ 1544-1555

미추홀국악단 국악과 캘롤

국악기와 현악4중주의 합주로 캐롤 메들리와 창작곡 등을 들어보는 이색무대이다. 관객들이 쉽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한국 악기의 특성 및 창작 배경도 들려주고, 특히 최고의 가야금 연주자며 작곡가인 황병기의 곡 '침향무' 가야금 2중주로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다.

일시 _ 12월 14일(일) 오후 4시
장소 _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
티켓 _ 무료(인터넷 예약)
문의 _ ☎ 440-6750

영화공간 주안 12월 상영작

이리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 폭발 사고가 살아 남은 자들뿐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현대의 사람들 그리고 도시 전체에 어떤 정신적 상흔을 남겼는지 두 남매와 주변인들의 삶을 통해 이야기한다.

도쿄

〈괴물〉,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 〈수면의 과학〉, 〈이터널 선샤인〉의 미셸 공드리, 〈폴라 X〉, 〈나쁜 피〉의 레오스 카락스 감독이 참여하여 '도쿄'를 배경으로 각자의 상상력을 경쟁하듯 스크린 위에 펼쳐냈다. 세 감독의 개성이 100퍼센트 발현된 완성도 높은 옴니버스 영화.

■특별상영 : 12월 6일(토) 1시 30분 프랑스영화와 함께 떠나는 문화여행

※ 영화공간 주안은 인천시 남구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으로, 일반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개관시간은 오후 1시부터 10시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 427-6777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기행전

1920~30년대 인천, 부산의 모습과 경인선, 경부선, 경성역 관련유물 240여 점을 전시하는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기행전'이 내년 3월 1일(일)까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1930년대 인천과 부산에 살고 있던 가상의 두 인물이 각기 기차를 타고 상대방의 도시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되는 근대도시의 모습을 여행기 형식을 빌어 풀어낸다. ☎ 440-6730

12월1일~12월15일 : 이희성 수채화전 연정 갤러리
12월2일~12월17일 : factory o/x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12월5일~12월10일 : 이근식 개인전 / 신세계갤러리
12월5일~12월11일 : 제7회 인천-터키 현대미술국제교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12월5일~12월17일 : 인천대학교 미술인의 축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 · 소전시실
12월11일~12월10일 : 김기룡 개인전 / 신세계갤러리
12월12일~12월18일 : 이철명 수채화 100주년 및 자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12월12일~12월18일 : 이용할 수 있는 조각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12월12일~12월18일 : 제15회 인천파스텔화회 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12월12일~12월18일 : 제11회 수요사생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12월19일~12월25일 : 제9회 인천광역시 미술전람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중앙 · 소전시실
12월19일~12월25일 : 제17회 인천가톨릭 미술가회 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12월20일~12월28일 : 크리스테마 '레드 & 화이트'전 / 신세계갤러리
12월26일~12월31일 : 제2회 최원복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12월26일~12월31일 : 자연생태 친화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 · 소전시실
12월26일~12월31일 : 봄여름가을겨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12월	2	**3** 아르스 브라스 콰이어가 드리는 '힘의 소리'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전석 1,500원 ☎ 507-5996	**4** 극단 미추홀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10시 30분 / 오후 4시 일반 3,000원 ☎ 507-5996	**5** '춤' 그리고 '여자'의 이야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전석 1,500원 ☎ 505-5995	**6** 한중일 琴 특별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5시 / 무료 **전자현악과 팝페라의 만남** 영종신도시 공항교회 오후 3시 / 무료 / ☎ 760-7860	**7** 코람데오,스테파노스 & 다솔 실내악단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7시 / 무료
인천시립극단 제50회 정기공연(멕베스)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오후 7시 30분 일반 1만5천원, 학생 1만원 ☎ 420-2790	**9**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일반 3,000원 ☎ 505-5995	**10** 박덕상 전통춤 한마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박덕상발림무용단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일반 3,000원 / ☎ 505-5995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전석 1,500원 / ☎ 507-5996	**11** 타앤락 콘서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7시30분 ☎ 501-1454	**12**	**13** 극단한무대〈달아달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7시 / 1만5천원 ☎ 876-5236 **중국 기예와 변검**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14** 미추홀국악단 국악과 캘롤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 오후 4시 / 무료 ☎ 440-6750
16	**17** 겨울연가의 피아니스트 데이드림이 드리는 송년 선물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전석 5,000원 ☎ 507-5996	**18**	**19** 인천시립무용단 제65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만원 ☎ 420-2788 **인천시립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인천순복음교회 대성전 오후 7시30분 / 초대 ☎ 420-2784 **라틴째즈 류복성 콘서트**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전석 1,500원 / ☎ 505-5995	**20** 인천시립무용단 제65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7시 / 전석 만원 ☎ 420-2788 **어린이 인형극 〈빨간모자〉**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혼성아카펠라 DIA**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3시 / 전석 6천원(학생무료) ☎ 777-9140	**21** 인천시립무용단 제65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만원 ☎ 420-2788 **원음회 정기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6시 / 무료
	23 인천시립무용단 제65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시30분 / 전석 만원 ☎ 420-2788	**24** 인천시립무용단 제65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시30분 / 전석 만원 ☎ 420-2788 **캐릭터뮤지컬 〈파워레인저와 일드스피릿〉**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4시30분, 7시30분 / 3만원, 2만5천원 ☎ 1544-1555	**25** 캘롤음악회 한중문화관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캐릭터뮤지컬 〈파워레인저와 일드스피릿〉**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3시30분, 4시 / 3만원, 2만5천원 ☎ 1544-1555	**26** 부천청소년현악합주단 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7시30분 / 무료 **송년음악회** 서울에서 오스트리아로 띄운 편지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전석 5,000원 ☎ 505-5995	**27** 〈비보이&발레리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5시30분, 8시30분 / 5만원 / 창라이프 ☎ 1566-6551 **재즈와 클래식의 만남** 한중문화관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28** 〈비보이&발레리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 5만원 / 창라이프 ☎ 1566-6551
29	**30** 가족종합퍼핏극 〈뽀로로와 생일선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 2만5천원 / 극단예인 **청소년과 떠나는 겨울방학 음악여행**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전석 3,000원 / ☎ 505-5995	**31** 가족종합퍼핏극 〈뽀로로와 생일선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7시 2만5천원 / 극단예인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기원 '송년제야문화축제'
2008년 12월 31일 오후 4시부터 2009년 1월 1일 오전 0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

| 일시 _ 12월 19일~24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 3시 · 7시, 일 3시
|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_ 전석 10,000원
| 문의 _ ☎ 420-2788 www.artincheon.go.kr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발레곡 호두까기인형은 시립무용단의 '눈으로 듣는 동화', '춤추는 동화' 등 일련의 가족무용 형식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작품이다.

극중 소녀는 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미디어 무용을 통해 호두까기 인형의 미디어 전래동화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게임 속 세상에서 길을 잃은 소녀는 환상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세상을 헤매고, 동화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춤과 이야기를 경험하며 현실과 가상의 차이를 이해한다. 공연 전후 로비와 무대 뒤에서 만나는 체험 미디어 월드는 관객들을 미디어 호두까기 인형 작품으로 안내하는 통로이자 오감으로 작품을 만나는 즐거운 경험의 장이 된다. 미디어 호두까기 인형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스토리를 읽는 것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이미지가 가지는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하며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게 한다. 컴퓨터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컴퓨터 게임과 전래동화가 공존하는 '호두까기 인형'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실래요

글 · **조화연** i-신포니에타 단장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베바, 베바…" 하며 열광하기 시작했다. 난 처음에 '베바'가 도대체 뭔가 했다. 그건 바로 모 방송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준말이었다. '베바'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지난 10월 인천대공원 수목원 개장 축하 연주를 하고 나오는데 한분이 "연주 잘 들었습니다. 요새 베바에 빠져 우리아이가 i-신포니에타 연주를 들으러 가자고 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했다. 정식 연주회도 아니고 20분 남짓 축하공연이었는데 용케도 이를 알고 찾아온 그 가족의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내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2006년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이란 타이틀로 시작한 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그해 10번의 공연을 성공리에 끝냈다. 이듬해에는 박물관에서 정식으로 정기공연요청을 받아 20회 가량을 공연했다. 그 후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은 많은 단체들의 공연무대로 또한, 시민들의 주말을 책임지는 명소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인천지역 문화예술계에 뭔가를 만들어 놓았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 i-신포니에타는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이슈가 되는 단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클래식은 어렵다'는 틀을 깨려는 시도와 관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한 것들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자극시켰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중 손꼽을 만한 것은 공연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었다.

오랫동안 공연을 해 온 유명한 한 지휘자는 "조단장,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목을 만들고 기획을 하는지, 이젠 우리도 또 다른 단체들도 i-신포니에타처럼 하자고 했어요."라는 말을 전하는 대선배들의 칭찬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메시지 같았다. 그렇게 제목을 달고 기획을 달리하니 관객들은 우리공연을 보고 웃고 울고 행복해했다. 그런데 정작 진정한 감동을 향유한 것은 우리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관객들이 보내주는 박수와 웃음의 메아리 속에서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i-신포니에타는 올해 〈사랑과 희망 나눔 콘서트〉라는 주제로 섬을 찾아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사는 마을공동체와 저소득층 아동센터, 그리고 미혼모시설과 장애인단체 등으로 찾아나서는 공연들을 하고 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예술적 감각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고 지휘하는 〈교과서야 사랑해〉라는 시간도 만들었다.

얼마전에는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서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소리나눔 콘서트〉를 마치고 돌아왔다. 서로 피부색과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교감할 수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공연을 하려고 관객들에게 찾아가면 처음엔 선뜻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러나 음악은 신비한 마력을 지녔다. 어느새 그들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들이 들어와 있음을 서로가 느끼게 된다. 그 하나되는 시간만큼은 그들 얼굴 속에서 행복이 가득 번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올해 예정된 i-신포니에타의 연주회가 널리널리 행복바이러스를 마음껏 전파하고 또한 모든 이들이 그 바이러스에 실컷 감염되었으면 좋겠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진짜 행복은 아주 싼데도 우리는 행복의 모조품에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 한다. –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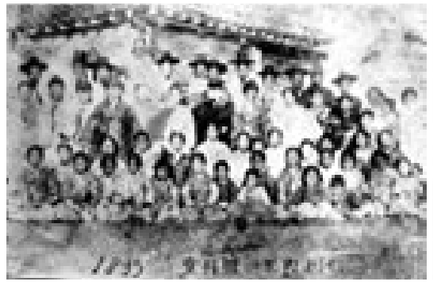
행복은 늘 우리주위에 가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며 어리석게도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스쳐가고 있다. 지금 주위를 한번 살펴보자. 이 순간 행복은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

‘합창 음악’의 도시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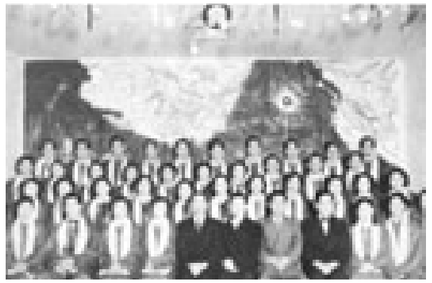
메시아 초연, 오늘까지 이어져

눈이 내리면 대도시의 차가운 콘크리트 정글에서는 추억의 소리들이 되살아난다. 아이들의 환호 소리, 먼 동네의 개 짖는 소리, 자동차의 경적 소리, 부둣가 외항선의 뱃고동 소리 그리고 늦은 밤 교회의 은은한 종소리 등 온갖 소리들이 비로소 눈과 함께 축복처럼 머리맡에 다가오는 것이다. 그 절정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이브에 듣는 성가대의 합창소리다.

글 · **조우성** 시인 ·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내리예배당 교인들(1895)



내리예배당 제 1회 메시아 공연中 기념사진

세상이 아무리 곤고롭다고 해도 인간사 희로애락이 한낱 바람에 날리는 쌀겨와 같음을 느끼게 하는 성가대의 맑고 청아한 노랫소리는 지상 최고의 화음이다.

그 평화의 화음이 이 땅에 처음 울려 퍼진 것은 1885년 7월이었다. 그해 부활절 오후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젤러 목사 부처는 갑신정변 등 혼란한 분위기 때문에 1주일 여를 대불(大佛)호텔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6월 20일 재입항한 아펜젤러 부처는 역시 사정이 좋지 않아 현 내리교회 주변에 세를 내어 머물러야 했다. 장마철이 되자 빗물이 줄줄 새는 등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중 7월 7일 일본에서 부친 풍금(風琴)이 증기선 편으로 도착했다.

그날은 인천 현대 음악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아펜젤러 목사의 부인 엘라 여사가 친구 리찌 이글리에게 보낸 편지에 “풍금이 방금 도착했는데, 다 괜찮아. 약 1시간 동안 헤리(아펜젤러의 별칭)가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이라는 찬송 등을 연주해 봉헌했단다. 한국 상공에 울려 퍼진 최초의 감리교 찬송이었지.”라는 글을 남겼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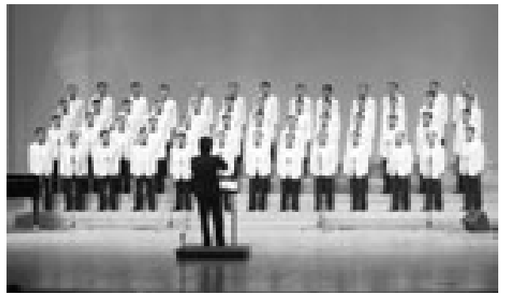
이는 이 땅 제물포 최초의 풍금 연주를 알리는 대목이었던 것이다. 그 20여 일 뒤인 7월 29일 아펜젤러는 서울 정동에 거처를 마련해 상경했지만 전후 45일간의 거류 기간은 제물포에 선교의 씨앗을 뿌린 귀중한 시간이었다.

상경 후에도 아펜젤러는 올링거와 노병일을 파송하는 등 제물포 선교에 큰 관심을 쏟았고, 마침내는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해 내리예배당을 짓고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 그것들은 인천의 교육,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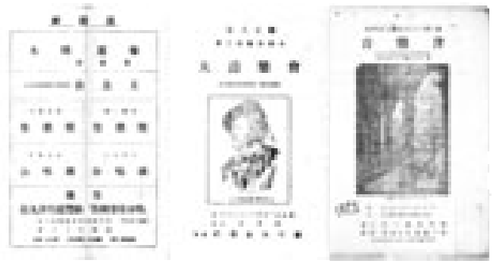
특히 음악 분야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 무렵 인천 읍내에 몇몇 서당이 있었다고 전해지고는 있으나 신식 음악을 서당에서 가르친 예가 없던 것으로 보아 영화학당에서 가르친 창가와 예배당에서 불렀던 찬송가는 민요나 판소리, 시조창 등에 익숙해 있던 이들에게는 그 자체가 경이로운 문화 체험이었으리라 짐작된다. 더불어 담방리, 부평, 강화 등지로 교세를 확장해 갈수록 찬송가도 함께 파급됐을 것은 번연한 일이고, 교회마다 성가대가 조직되면서 보다 전문화된 음악 지식이 보급되면서 인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근대적 음악 지식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됐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인천은 서양음악의 세례를 받은 근대적 ‘음악의 도시’ 였고, 일찍이 인천공회당 등을 통해 음악 예술 행위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음악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성악가 이유선(李宥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전공한 박흥성(朴興成), 한국농아악단을 창설했던 김흥산(金興山), 작곡가 김기현(金基鉉), 최순룡(崔順龍), 성악가 원종철(元鐘哲), 바이올리스트 박종성(朴鐘聲), 피아니스트 최성진(崔星鎭), 장보원(張寶媛) 등이 그 주인공들이었다.

인천공회당과 내리예배당은 한동안 음악 공연장으로 유명했다고 전한다. 일본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돌아온 원종철의 첫 무대가 인천공회당이요, 6 · 25전쟁 직후인 1954년 우리나라



인천남성합창단



합창공연 팜플렛들

음악사상 최초로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한 곳 또한 내리예배당인 것이다.

내리교회에서 성가 대원 이선환의 전곡 사보(寫譜)와 작곡가 최영섭의 지휘로 오라토리오 ‘메시아’ 의 국내 초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천 음악계의 앞날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952년 인천 최초로 발족한 인천시합창단 단원의 주축이 내리교회 성가대 대원이었고, 합창단 지휘 역시 국민가곡 ‘그리운 금강산’ 의 작곡자로 유명한 최영섭이 맡았던 것이다. 오늘날 인천이 ‘합창 음악의 도시’ 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지휘자 윤학원이 이끄는 인천시립합창단이 국내외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내리교회가 뿌린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름만 들어도 그 옛날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려올 듯 싶은 인천남성합창단, 샤론합창단, 대한어머니합창단, 호산나합창단, 로고스합창단, 노엘합창단,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 합창으로 활동을 해 온 인천장로성가단 등은 인천 합창의 면모를 일신케 한 모태들이었고, 지금도 여성문화회관합창단, 와이즈맨합창단, YWCA합창단과 구립합창단 등의 활기찬 연주 활동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올 첫눈이 내린 지도 벌써 달포가 가까워 온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위시해 각급 합창단들의 아름다운 코러스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눈꽃 축포가 펑펑 터져 내려 지상을 순결과 정화와 평화의 손길로 훈훈하게 장식해 주리라.

외국인 인천생활 더 편해집니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의 개최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시를 찾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외국인들이 인천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서비스 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영어, 자신 있으세요? 인증해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2월,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Incheon Free English Zone)'를 선포했다. 그리고 2020년 영어 자유화를 목표로 영어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영어서비스 인증제는 인천을 찾는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English-friendly'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자주 찾는 서비스 업체를 우선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해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다.

인증제는 지난 8월 시작해 다가오는 오는 2014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위생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운수업체, 병원 등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들 업체가 영어교육을 신청하면 검토를 통해 강사를 지원하는 등 업체의 여건에 맞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게 'English-friendly' 영어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홍보와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영어인증 마크를 부여받는 심사기준은 직원들의 영어능력을 비롯해 영어 안내표식과 안내방송, 영어 홈페이지 구축여부 등이다.

외국인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시는 영어서비스 인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시민과 전문가 주축으로 한 영어인증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영어서비스 인증마크를 선정했다. 심사위원은 인천시의회 김소림 의원, 인천관광공사 장태순 본부장, 인천시민명예외교관협회 정원모 부회장, 인천발전연구원의 이용식 박사, 인천대 유혜배 교수, 국제교류센터 채이형 팀장, 인천전문대 마크 헬리웰 교수 등이다. 이들 심사위원은 향후 2년간 영어 서비스 인증 대상 업체를 심사하고, 영어서비스 인증제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세부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영어서비스 인증제는 현재 명품음식점과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을 교육시키고 교육인증마크를 발급한 것을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향후 택시, 숙박업소, 유람선 등 서비스업계 전반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이들 업체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증마크를 발부, 인천 내 영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제 인천을 찾는 외국인 누구나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날이 오는 것이다.

부부결별과 세금

Q 이혼시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 세금을 내야만 하나요? 낸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는 것이 금전적인 문제인데, 크게 혼인관계가 깨진 데 따른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 부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재산분할청구 및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특히 과세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 또는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뜻하는데, 이혼소송의 경우 특히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하는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으로 이해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등 어느 소득원천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어 증여세의 과세대상도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자료로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우리 대법원은 그 성질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은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는 물론 증여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와 달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등록세는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위와 같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 모두 소득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자료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시에 현금의 지급은 위자료로, 부동산의 양도는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세금문제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종료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혼재되어 그 구분이 쉽지 않으나, 우리 대법원은 그 입증책임을 처분청에 맡기고 있으며, 처분청은 적어도 위자료 등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글 · **김형찬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 861-5511)

인천 선교의 아버지

조원시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출산 앞둔 만삭에 얻은 운전면허증

지방의 작은 읍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17년 전 운전면허에 처음 도전했다. 필기시험은 어렵지 않게 한 번에 합격했지만 운동신경이 둔해서인지 실기시험에서는 세 번이나 떨어지고 말았다. 급기야는 필기시험을 본 지 1년 안에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지금이야 학원도 많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 17년 전만 해도 운전학원이 많지 않을 뿐더러 지방이다 보니 2~3개월에 한 번 실기시험이 있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면허시험 날은 공교롭게도 결혼을 하고 첫 아이의 출산을 10여 일 앞둔 날이었다.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은 그 몸으로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며 극구 말렸지만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번에 포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또 무엇보다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아 더욱 욕심을 부린 것이다. 그렇게 난 주위의 걱정을 뒤로하고 시험에 응시해 실기시험 네 번 만에 합격의 영광을 얻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과감한(?)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때 심정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했다.

최미연_부평구 삼산동

안전운전하세요~ 꼭~

오늘은 운전시내연수 교습 첫날이다. 장롱에 10여 년을 잠들어 있던 내 운전면허증이 이제야 제 실력을 발휘하려나보다. 그동안 운전을 하지 못한 이유는 차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아주 또렷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다. 면허증을 취득할 무렵, 필기시험에 붙고 기쁜 나머지 실기연습장으로 바로 달려갔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연습을 하고 실기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다. 때는 한겨울, 실기장 내에 설치된 간이건물 쉼터에서 따듯한 커피를 마시며 몸과 손을 녹이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연습용 자동차가 선로를 이탈하고 건물 쪽으로 질주하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혼비백산 놀라 재빨리 자리를 빠져나왔다. 뒤를 보니 건물은 산산조각이 났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사람들은 주저앉거나 울었다. 나 역시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놀란 가슴은 좀처럼 가시지를 않았다. 그날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아주머니는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두 번 다시 운전연습장에 나오지 않았고, 나도 운전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 '운전면허증을 꼭 따야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이 것이 내가 장롱면허를 갖게 된 사연이다. 하지만 다시 운전대를 잡은 지금, 열심히 연수를 받아서 나와 남을 모두 위하는 안전운전을 할 생각이다. 다른 사람들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갖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김효빈_서구 검암동

불합격상련

때는 2003년, 대학을 갓 졸업한 나는 차를 끌고 다닐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따라 무작정 운전면허 학원을 찾았다. 당시 나는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1차 실기를 공식대로 무사히 마친 상태여서 그야말로 자신감 100%였다. 이제 도로연수가 남았다. 해안도로 코스를 반복하며 도로연수 역시 합격을 장담했었는데… 이게 웬걸… 하늘의 장난인지 시험 당일 아침 안개가 자욱이 껴, 안 그래도 시험울렁증이 있는 나를 더욱 긴장케 했다. 또 제복을 입은 심사관 아저씨는 왜 그리 무서워 보이는지… 결국 나는 실수에 실수를 거듭해 고배를 마셨다. 함께 차에 탄 세 명의 응시자 가운데 유일한 탈락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 속상한 마음은 불합격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하리라. 그 후로 남다른 각오로 2차에 도전. 과감히 엑셀을 밟아 1종보통의 면허를 취득했다. 그런데 그날 나보다 먼저 시험을 치르고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한 응시자가 있었다. 처음 응시하는지 몇 주 전의 나처럼 엉엉 울고 있었다. 나는 생면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엔 붙으실 거에요. 저도 그랬어요"라고 격려해주었다. 면허증 발급 절차를 밟고 집에 와서도 동변상련의 불합격자에게 힘을 주었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뿌듯했다. 지금 면허증은 5년 째 서랍에서 잠자고 있지만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손수현_남구 학익2동

울지마! 사랑해! 사랑해!

오랜만에 운전면허증의 발급연도를 확인했다. 94년이다. 벌써 강산이 한 번하고도 반이 변한 시간이다. 신랑이랑 연애하던 시절이었는데 신랑은 그때 왜 그리 면허증을 따지 못하게 했는지… 오랜 설득 끝에 면허증을 따서 가지고만 있겠다는 조건으로 학원에 등록을 했다. 필기시험을 한번에 붙고,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실기시험을 보게 되었다. "실기는 필기시험과는 달라, 긴장하지 말고 기아변속 잘하고", "걱정하지마 내가 누군데 히히" 걱정가득한 표정으로 나보다 더 긴장한 신랑을 뒤로한 채 나는 당당히 차에 올랐다. 그런데 차에 오르자 모든 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출발소리조차 들을 수 없어 간신히 출발을 했지만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었고, 결국 "금해연 씨 불합격!"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차에서 내릴 수조차 없었다. 겨우 차에서 내린 나는 시험장 안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다. 그때 신랑이 놀라서 달려왔고 난 신랑을 보자 더 크게 울고 말았다. 신랑은 눈물콧물 범벅이 되어 울고 있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울지마! 괜찮아! 면허야 다음에 따면 되지. 울지마! 연아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아닌 소동을 부리고 면허시험장을 나왔다. 지금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때는 내가 바보같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어쩌면 신랑에 대한 미안함과 창피함 때문에 더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겠다. 운전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10여 년이 넘게 지켰지만(?) 지금은 내 일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신랑도 가끔 술 약속이 있을 때 태워주고 태워오고 하는 것이 결코 싫지 않은가보다. "마누라가 운전하는 차타는 기분도 나쁘진 않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금해연_남동구 만수4동

굽 높은 부츠를 신고 딴 운전면허

8년 전이었다. 출근길에 '5일만에 운전면허 취득보장'이라고 쓰여진 전단지를 보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했다. 등록비가 저렴하고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기에 바로 등록하게 되었다. 등록하던 첫 날, 강사는 나를 조수석에 태우고 시범운전을 돌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나보고 운전을 직접 해보라고 권하였다. 강사생활 10년의 경력으로 봤을 때 왠지 내가 운전을 잘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다. 나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운전용 신발을 준비하지 못해 5센티미터 높이의 앵클부츠를 신고 운전하게 됐다. 조금은 떨렸지만 첫 느낌이 너무 좋았다. 본격적인 훈련은 바로 다음날부터였는데 나는, 운전감이 달라질 것 같아 도저히 신발을 바꿔 신을 수가 없어서 계속 앵클부츠를 신고 운전을 연습했다. 그 후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도 순탄하게 합격했다. 그 때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잘 풀려갔다. 그리고 이윽고 도로주행 시험 날이 되었다. 그날도 나는 당연히 그 부츠를 신어야했다. 그런데 시험관인 경찰관이 나의 앵클부츠를 보더니 "신발이… 허어~!"라고 코웃음을 치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데 기분이 왠지 불안했다. 승차해서 운전을 막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조수석에 앉은 경찰관이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였다.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의 앞, 뒤, 좌, 우를 살피지 않았다는 거였다. 승차 직전에 느꼈던 불안감으로 그만 실수를 하고 만 것이었다. 차에서 내리는데 이미 나는 다리의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차 주위를 살피면서 안에 앉아있는 경찰관과 눈이 마주쳤는데 못마땅한 듯 노려보는 눈빛이 따갑게 느껴졌다. 다시 승차해서 시동을 거는 순간 경찰관이 시동을 켠 내 손등을 자신의 손으로 찰싹 때리고는 시동 켠 손을 꽉 움켜잡는 거였다. 내가 키를 너무 세게 확 제쳐서 켰다는 게 이유란다. 나는 침착하자고 몇 번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감점! 감점!"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경찰관은 어느 학원에서 운전을 그 따위로 배웠냐며, 그런 학원은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그러던 중 최종지점까지 도착하고, 경찰관은 나에게 "불합격인거 알죠?"라고 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두 번째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는 날, 혹시 그 경찰관이 나오면 어쩌나 싶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다른 경찰관이었다. 불합격의 요인들을 떠올리며 연습을 해서인지 다행히 실수 한 번 없었고 시험관은 침착하게 참 잘했다며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딴 운전면허인 만큼 나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초보의 심정으로 운전하려고 노력한다. 도로에서 가끔 만나게 되는 노란색 도로주행용 차량을 보면 저절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다.

김진희_서구 가좌동

마흔에 딴 소중한 면허증

내 나이 40중반이 되어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어렵게 통과하여, 당시 어떻게 합격했는지 실감조차 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실패한 까닭은 너무 안일하고 방심한 탓인 듯싶다. 이 때문에 지금 소지한 면허증이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어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골에서 자라나, 어릴 적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또 먼 곳으로 나들이 할 때 기차역에서 내리면, 하루에 한두 차례 오는 버스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비포장도로를 3시간 정도 걷는 것이 보통이였다. 지금 매년 몇 차례씩 자가용으로 고향 길을 왕래할 때면, 어릴 적 고생스러웠던 추억이 새삼 떠오른다. 늦게나마 취득한 면허증으로 자유롭고 편리하게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체면유지도 할 수 있으니 퍽 다행스럽다.

신동철_연수구 송도동

다음달 테마는 '세뱃돈' 입니다.

'운전면허증'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8302)

진료비 궁금증! 이렇게 해결 하세요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진료비 확인제도란?**

병원에서 진료 받고 납부한 진료비 중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항목(비급여대상)에 대해 확인 신청하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적용여부를 판단해 과다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진료 받은 본인 · 배우자 · 형제자매 · 직계 존 · 비속,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자

※ 직계 존비속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대리인의 경우 수진자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수진자 인감증명서 제출

– 신청방법 :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별도 진료비영수증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 **업무절차 및 기간**

– 보험적용 대상인데 비급여로 징수(예 : CT검사 등)

– 수술비에 포함되어 별도 받을 수 없는 치료재료대(예 : 거즈 등)

– 보험수가로 전액부담하는 약제를 비급여로 징수 (예 : 무통주사 등)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 452-7120, Fax 870-4351**

인하대학교 Winter 주니어 영어캠프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인하대학교에서는 '제7회 인하대학교 Winter 주니어 영어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는 월 · 수 · 금/화 · 목 · 토 반으로 나뉘어 주 3일 7시간 동안 4개 영역 학습에 맞추어 체계적인 집중학습과 완벽한 E.S.L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또 EOZ(English Only Zone)을 접목시켜 아이들이 100%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캠프명 :** 인하대학교 Winter 주니어 영어캠프

■ **기간 :** 2009년 1월 2일(금) ~1월 31일(토)

■ **장소 :** 인하대학교 캠퍼스

■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 **문의 : 인하대학교 주니어 영어캠프**
☎ 868-0569, http://inha.hieduenglish.com

교육 · 문화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대상	내용	활동일시	접수일시	참가비	비고
청소년 체육 활동	청소년탁구대회 탁구를 좋아하는 동구 관내 청소년들의 친선 교류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	청소년 중 · 고등학생	탁구대회	11월 29일 14:00~16:00	11월 10일~ 11월 28일 까지 전화 및 방문접수 (선착순)	무료	활동장소 :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
가족 문화 체험	충전200%문화마당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마당	지역 주민	블록 만들기 대회	12월 13일, 20일 (2, 3주차 토요일)	11월 25일~ 12월 12일 까지 전화 및 방문접수 (선착순)	무료	활동장소 :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
겨울 방학 문화 교실	파티쉐를 만나고, 나만의 개성 있는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진행	초등학생 4~6학년	파티쉐 인터뷰, 파티쉐 체험활동	12월 27일 9:30~12:00	11월 22일~ 12월 20일	2,000원 (환불불가)	활동장소 : 경인제과 제빵원
겨울 학기 교육 아카데미	오감발달놀이	24개월~ 3세	매주 화 11:40~ 12:30	12월~ 2009년 2월 (3개월 과정)	11월 20일~ 12월 31일 (추가등록 가능)	60,000원	재료비 : 21,000원
	유아발레	4세~7세	매주 화, 목 15:30~ 16:20			90,000원	–
	유아창작미술	4세~5세	매주 수, 금 15:00~ 15:50			72,000원	재료비 : 15,000원
	아동미술교실	6~7세	매주 수, 금 16:00~ 16:50			72,000원	재료비 : 15,000원
	아동주산교실	6~7세	매주 수, 금 15:00~ 15:50			72,000원	교재비 별도
	초등주산교실	1~4학년	매주 수, 금 16:00~ 16:50			72,000원	교재비 별도
	초등창작미술	1~3학년	매주 화, 목 16:00~ 16:50			72,000원	재료비 : 15,000원
	초등뎃생 · 수채화	4~6학년	매주 수 13:30~ 14:50			60,000원	재료비 : 15,000원

■ **문의 : 화수청소년문화의집 ☎ 762-7942, www.dreamyouth.kr**

노인 교통사고 예방하세요

■ 운전자 · 보행자의 준법의식 향상으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및 부상자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도로교통공단의 2008년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2003년 1만 180건을 기록한 후 계속 증가해, 2007년에는 1만 5천 여건으로 평균 10%씩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38.8명이며, 영국과 스웨덴의 6배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으며 사고 유형을 보면 무단횡단 중의 사고가 60%로 가장 높다.

■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은 평소 횡단 시설 및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하는 보행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 야간이나 새벽에 외출할 때에는 어두운 색상보다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반사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또한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이나 노인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를 운행할 때는 시속 30km/h 이내로 서행하고,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 · 정차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야간 운전 시에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다고 과속하지 말고 안전운전에 주의를 다해야 한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인천지부 ☎ 830-6162**

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따듯한 시간을

부평기적의도서관에서는 2008년 연중프로그램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한 권의 책으로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 해 마지막으로 깊어가는 겨울 밤, 부평기적의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 책과 함께 따듯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 **행사명 :** 책을 만난다. 친구생각 + 내 생각

■ **행사일시 :** 12월 18(목) 오후 7시부터

■ **장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공연장 어울림

■ **대상 :** 도서관 어린이 및 가족 이용자 누구나

■ **이달에 만나볼 책 :** 〈지하정원〉 조선경 글 · 그림

■ **내 용**

– 영상으로 만나는 책 이야기

– 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

– 함께 동요 부르기 및 작은 공연

■ **문의 : 부평기적의도서관 ☎ 505-0612, 3, www.bpm1.or.kr**

제24기 국악회관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인천예총 국악회관에서는 우리 전통 가락의 아름다움을 배우며 취미생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제24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강좌기간 :** 12월 22일(월)~2009년 3월 14일(토)

■ **강좌내용 :** 가야금, 대금, 단소, 피리, 거문고, 해금, 태평소, 민요 · 장구, 판소리, 모듬북, 풍물, 한국무용

■ **접수기간 :** 11월 24일(월)부터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팩스, 전화접수

■ **문의 : 인천예총 국악회관 ☎ 876-8364~5, Fax 032-876-8367, www.kukakha11.co.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국악회관을 입력하세요.

취업정보센터 무료 취업알선 실시

인천광역시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직자와 기업간의 정보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구직을 돕기 위하여 무료 취업 알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내용(평일 09:00~18:00)**

– 일반 구직자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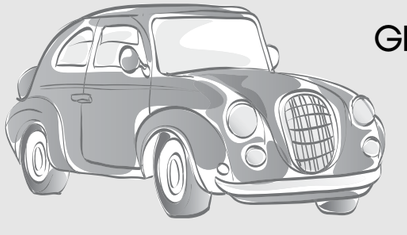
– 이력서 작성 대행 등 취업준비 지원

– 구인기업에 구직자 알선 및 각종 장려금 안내

■ **야간예약상담(매주 화요일 18:00~22:00)**

– 주간방문이 어려운 구직자 대상, 일과시간 후 예약상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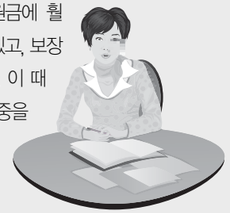
■ **문의 및 상담예약 : 시 취업정보센터 ☎ 440-2677, 427-1919**



GM대우가 살아야 인천경제가 살아납니다

GM대우가 인천경제에서 차지하는 GRDP 비중은 25%에 달하며 GM대우 관련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만도 3만여 명에 이릅니다. 시민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이때 GM대우 차를 사랑해주셔서 인천경제를 살립시다.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보험제도



보험계약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보장이 필요할 때 재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해약 시 다른 금융상품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한 제도**

– 감액(Reduced) 제도
보장(보험금) 수준과 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방법

– 감액완납(Reduced Paid-up) 제도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법

– 보험계약대출(Policy Loan) 제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대출'

–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기능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에는 의무납입기간*이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의 중지(미납입) 가능

■ **부득이 하게 해약하는 경우 순서**

–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투자형) 상품부터
– 이자율이 높은 상품(과거 가입)보다 낮은 상품부터
– 세제지원 상품보다 세제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부터
– 보장내용이 중복되어 가입된 상품부터
– 최근 판매되지 않는 상품보다는 최근 판매 중에 있는 상품부터

■ **신청절차 :**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회사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 02-3786-823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담금 환급계획의공고) 규정에 따라 구(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2000년 2월 28일 이후 개발사업승인을 득한 후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2001년 7월 30일 시행)'에 의해 분양공고한 사업부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7397호(2005년 3월 24일 시행)로 개정되기 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기 환급자 제외)

■ **환급 신청인**

1)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최초분양계약자"라 한다)
2)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이하 "매수자"라 한다)
3)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민법」에 따른 상속인(이하 "상속인"이라 한다)
4) 대리인
① 최초분양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② 상속인이 지정하는 자
5) 부담금 환급권리를 양도받은 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 **환급통지서 발급 일정**

1) 발급일 : 11월 3일
2) 방 법 : 우편발송
3) 대 상 : 최초분양계약자

■ **환급대상지역 :** 경제자유구역청 외 7개 구 · 군

■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1) 최초분양계약자 신청시
2) 매수자 신청시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②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③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④ 계약사실 및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본인 도장 우편접수 가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3) 상속인 신청시

■ **신청서 접수**

1) 접수일 : 2008년 10월 28일부터(서구청은 11월 3일부터 접수)

※ 환급신청서 접수일은 해당 군, 구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접수처 : 경제자유구역청 외 7개 구 · 군
3) 연수구청에서 부과되어 납부한 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환급 신청

■ **환급일시 :** 환급신청 이후 6개월 이내 지급예정

■ **환급방법 :**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금 환급권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문의 : 시 건축계획과 ☎ 440-4726**

국비지원 기능인을 모집합니다

홍익자동차직업전문학교에서는 국비지원 과정, 일반생 과정 등을 통해 자동차정비 · 경비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진단평가사2급 수강생 등을 모집합니다.

■ **자격증 취득종목 :** 자동차정비검사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진단평가사2급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 중 혜택	구비서류
국비지원 무료과정 (6개월)	2009년 1월 28일 개강예정 09:00~15:20 (6시간)	교육비 100% 전액국비지원 훈련수당 매월 11만원 지급 (총 660,000원 수당지급)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시까지 연장교육 군입영 연기 혜택 및 대학진학	신분증사본 우체국통장사본 사진반명함 3장 구직등록필증
일반생 과 정 (6개월)	수시개강 오전반: 10:00 12:50 오후반: 19:00 21:50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시까지 연장교육 군입영 연기 혜택 및 대학진학 졸업생 취업알선 및 해외이민	반명함 2장
재직자 환급과정 (4개월)	2009년 1월 2일 개강 19:00 21:50 (3시간)	수강료 80만원(환급금 : 64만원)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시까지 연장교육	신분증사본 본인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사진반명함 2장

■ **문의 : 홍익자동차직업전문학교**
☎ 762-1109, Fax 766-8189, www.hongikcar.co.kr

보험료 조정 및 경감신청 안내

보험 가입자 가운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 및 경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구비서류	서류 발급기관
조정	보험회사 해촉 · 해지 소득금액변동(소득금액증명원에 의거 증명되는 경우) 확인가능한 사업자등록 폐업은 공단에서 일괄 조정	– 해촉 · 해지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 보험회사 – 해당 세무서
조정	재산건물, 주택, 토지등)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기부등본은 매수자 주민번호 '공개' 로 발급 재산 매각후 전월세 거주자는 전월세 계약서 추가제출	–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토지대장	– 등기소 – 시 · 군 · 구청
조정	자동차 매각/폐차 확인 가능한 매각/폐차건은 공단에서 일괄 조정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 시 · 군 · 구청 – 자동차등록사업소
경감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는 소득(장애연금, 유족연금 제외)이 3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과표액이 1억3천만원이하인 세대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한 다음달부터 경감(중복된 경우 유리한 경감을 하나만 적용) –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 20세 이하 소년 · 소녀가장세대, 모자 · 부자가정세대 – 만성질환세대 등 ※ 65세 이상, 장애인상이자),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는 공단에서 일괄 경감 적용	– 가족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 진단서 등 입증서류	– 읍 · 면 · 동사무소
경감	– 보유재산의 2/3이상이 경매 중, 전체재산 본압류 세대	– 등기부 등본	– 등기소

※ 재산(건물, 주택, 토지)을 매각한 경우, 관할 지사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 452-7120, Fax 870-4351

21세기형 지역커뮤니티 동/네/마/당

정부는 이웃간의 만남, 대화, 놀이, 모임, 공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동네마당'이란 공간을 조성한다. 이는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당'은 우리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모임터였으며, 끈끈한 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소였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이웃간에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게 되고, '마당'은 추억의 장소로만 기억하게 되었다. 오늘날 도시 내 휴식공간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노인, 주부, 청소년 등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 휴식 공간은 양적 · 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옛날 우리네 마당과 같이 가족과 이웃간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네마당'을 계획하게 되었다. '동네마당'이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100평~300평 규모의 소규모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원하는 녹지공원도 조성할 수 있고, 간이 운동시설, 정자, 소규모 공연장, 어린이 놀이터, 공부방 등도 설치할 수 있다. 특별히 산업화 · 도시화로 인하여 소외받은 영세민 밀집지역에 '동네마당'을 조성하여 영세민 밀집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내년 중 20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 내용에는 국내외의 동네마당 및 쌈지공원 등에 대한 사례 및 바람직한 모델 조사 · 분석 도시 공공 공간의 질을 제고하는 창의적인 모델제시, 지역의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네마당의 모델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12월에는 연구용역의 내용 및 시 · 도 수요조사 결과, 해당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고, 빠르면 내년하반기에 주민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존의 사업추진이 사업목적과 용도, 규모면에서 획일적 · 천편일률적으로 추진된 반면,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시설입지부터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즉 장소선정과 시설물의 종류와 시행방법을 당해지역 주민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사업관리 및 예산지원을 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넘겨 자치적으로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지역 주민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전기 · 수도 · 광열비 등의 저렴한 비용은 매점, 음료자판기, 시설물 임차 등 수익적 공간을 확보하여 부담하고, 시설물의 개보수 등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관할 시군구 예산으로 분담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지자체는 유지관리부담을 덜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어릴 적 '우리 집 마당'과 같이 꽃과 나무를 심고, 이웃간 함께 즐기고, 주민들이 휴식하고 사색할 수 있는 '동네마당'이 조성되어, 지역주민들간 나눔과 소통의문화가 활발히 어우러지는 열린 지역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 02-2100-2815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2008년도 지난호 보기

〈굿모닝인천〉 지난호 내용은 굿모닝인천 홈페이지 (goodmorning.in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월호

새해인사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창규
신년현장	인천대교
희망채널 21 · 36	OBS 경인TV 개국
Incheon Dream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Good Morning 2008	새해 시정설계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①	세계가 꼽꾸는 도시, 뭔헨
Healthy Life 건강백세	소아비만
인천 구석구석 즐기기	겨울, 실내에서 즐기기
'추억'을 추억하다 ①	이발소
지상박물관	전동에서 만들어진 근대화폐
인천역사 책갈피	종(鐘)과 오포(午砲), 그리고 사이렌
인천이 담긴 詩 ⑬	김차영의 '강도의 하늘'
인천을 빛낸 사람들 ①	시각 장애인의 등불 '송암 박두성'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	김수홍 씨

2월호

Zoom in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성공결의
View	엑스포는 미래를 전망하는 무대
세계 속의 인천	세계언론이 주목하는 송도국제도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역대 최고대회 준비
포커스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②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코펜하겐
자매도시 우호도시 ⑧	파나마 파나마시티
Cinema in Incheon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함께 사는 인천	전국 최초,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정보뱅크	인천의 정보 · 자료실
Healthy Life 건강백세	이상근 증후군
지상박물관	송대철재범종
모닝커피 한 잔	자연의 순리대로 살기
인천역사 책갈피	1907년 인천에 큰불, 4백 채 잿더미
인천을 빛낸 사람들 ②	제 2공화국 총리 '운석 장면'

3월호

글로벌 인천	우리는 하나 Wonderful Incheon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120개 국제도시의 '재발견'
파이팅 인천	인천유나이티드 FC
살기좋은 인천	대중교통 첨단시설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③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비엔나'
봄, 인천산에 오르다	① 강화 고려산 ② 도심의 산 & 섬 속의 산 ③ 등산용품 거리
인천을 걷다	① 인천대공원 ~ 수도권해양생태공원 ② 바른 걷기, 스윙워킹
함께 사는 인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상박물관	각국조계석
모닝인터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
모닝커피 한 잔	아이들 눈 속에 비친 우리의 미래
인천역사 책갈피	향교도 최초, 초등 신교육도 최초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 열전 ③	역사의 풍랑 속에 핀 최랑 '삼연 곽상훈'

4월호

이달의 꽃	송도의 미래, 찬란하다
파이팅 인천	비룡, 신화는 계속된다!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④	시스템 도시의 표본, 도쿄
인천의 사월	동네 곳곳에서 순백의 쇼 펼친다
2009인천방문의 해	Come Together, Fly Incheon
시티투어	인천 명소 한 번에 유람하기
Eduport Incheon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Healty Life 건강백세	우울증
인천을 걷다	삼산동 굴포천 한바퀴
동서남북	인천소비생활센터
지상(球上) 박물관	학익고인돌
모닝인터뷰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근학 위원장
모닝커피 한 잔	진정한 여성으로 살아가기
인천역사 책갈피	'중앙'에 밀린 방송 사각지대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성 의용소방대장 고춘자 씨

5월호

브리핑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View	루원시티(LU1 City)
이달의 꽃	시민과 가까이, 행복이 활짝
포커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1주년 기념행사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⑤	스페인 바르셀로나
5월 행사	햇살보다 찬란한 오월 賀賀 好好
인천을 걷다	월미산
행복느낌 90.7㎒	경인방송 Sunny FM
탐방	인천신용보증재단
동서남북	국정원 & 인천지하철공사 소식
Healty Life 건강백세	고혈압
지상(球上) 박물관	건칠여래좌상
모닝인터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
모닝커피 한 잔	축제의 아웃사이더가 되시겠습니까?
인천역사 책갈피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그라운동장'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 열전 ④	최초 근대식 군항 함장 신순성

6월호

View	송도국제도시
브리핑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세계의 허브	인천국제공항 2단계 그랜드오픈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⑥	호주 시드니
인천 200% 즐기기	세어도
호국보훈의 달	우리 지역의 현충탑
Open	한국이민사박물관 개관
탐방	인천관광공사
정보뱅크	인천의 과학체험 시설
현장	행복한 부부캠프 및 양코르 웨딩
Healty Life 건강백세	척추 측만증
인천역사 책갈피	인천은 한국 이민의 출발지이자 본향(本鄕)
모닝인터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소림 위원장
모닝커피 한 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모닝 스페이스	최병관의 '생명, 환희 그리고 DMZ'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 열전 ⑤	강재구 소령

7월호

喜 2008	151층 인천타워 & 송도랜드마크시티 기공식
	대통령 업무보고 및 건의사항
브리핑	민선4기 2주년 성과
세계 명품도시를 가다	북유럽 4개국
Summer Story	4色 바다, 네 가지 행복
Summer in Incheon	한여름 무더위, '화끈' 축제로 이열치열
여름철 에너지절약 생활백서	다 함께 아끼면 모두 행복해진다
여름철 식품안전	여름식탁 안전하게 지키세요
Healthy Life 건강백세	비만
수자기 귀환기념 특별전	하늘을 올린 전투, 신미양요
모닝 인터뷰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
인천역사 책갈피	팔미도 등대, 우리나라 바닷길 처음 밝혀
모닝커피 한 잔	바다는 영원한 블루오션이다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 열전 ⑥	한국 희곡 작가의 거목, 함세덕

8월호

喜 2008	민선 4기 2주년 평가
Vision	송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포커스	에너지 절약에 지혜와 힘을 모은다
View	관광 모노레일 착공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⑦	미국 호놀룰루
조명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그린바캉스	인천 섬 팜스테이
여름방학 특집	체험 프로그램
동서남북	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Healthy Life 건강백세	눈병
모닝인터뷰	시의회 고진섭 의장
Zoom In	인천시 홍보대사
인천역사책갈피	건국 60년, 되돌아본 인천의 발자취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열전 ⑦	건국의 큰 어른 '백범 김구'

9월호

View	송도 중앙공원
Zoom in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인천
Open	송도컨벤시아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주요 컨텐츠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⑧	프랑스 파리
인천의 산	마니산
미리 가 보았습니다	강화평화전망대
정보뱅크	한가위 맞이 우리지역 특산물
Healthy Life 건강백세	수면장애
지상(球上) 박물관	근대 문물
모닝인터뷰	인천시의회 이근학 제1부의장, 유천호 제2부의장
모닝커피 한 잔	음악으로의 초대
인천역사 책갈피	국제외교의 1번지였던 제물포
함께 나누는 세상	급여 우수리 나눔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 열전 ⑧	검여 유희강

10월호

Music Korea 2008	국제적인 악기박람회로 발돋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세계 문화의 거리
포커스	베이징올림픽 출전 인천 소속 선수단 환영
특별기고	인천, 국제적인 복합운송기지 전망 밝다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⑨	스페인 빌바오
인천 200% 즐기기	문학경기장
Taste of Incheon	인천음식문화축제
Enjoy Incheon	10월의 축제
Healthy Life 건강백세	대사증후군
Cinema in Incheon	섬, 항구, 갯벌… 인천은 영화다
조명	재능대학
Zoom in	인천상륙작전 첫 재현
모닝 인터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철 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윤지상 위원장
인천역사 책갈피	야구사랑은 인천의 진한 지역정서

11월호

현장	송도컨벤시아 개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꿈꾸는 도시는 아름답다
Eco Report	강화 매화마을 람사르 습지 등록
Zoom in	인천 수돗물 전국 수질검사 1위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⑩	캐나다 몬트리올
스페셜 Info	제7회 ITC 2008 인천국제정보산업전시회
인천의 가을	① 인천대공원 수목원 ② 인천의 단풍길
정보뱅크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브리핑	대중교통 및 여객선운임 할인제
Healthy Life 건강백세	갱년기 증후군
함께 사는 세상	인천의 상담 · 지원 기관
인천역사 책갈피	'짠물'에서 '참물'까지 100년
뉴스 포커스	인천시 시민상 · 문화상
모닝 인터뷰	문교사회위원회 김옹근 위원장,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 열전 ⑨	세계의 나그네, 지구의 방랑자 김찬삼 교수

Winter Escape on Baengnyeong Island

Tourist : I am visiting Baengnyeong Island for a few days. Could you suggest something fun for me to do here?

Resident : There is a lot of history on this island! You can visit the beach that was used as a landing strip during the Korean War. There is only one other beach like it in the whole world.

Tourist : Oh, really? That sounds interesting. Is there anything else I should see?

Resident : There is a beautiful National Park here-it is called Pebble Beach. There are many restaurants where you can sit and watch the sunset over the water.

Tourist : Thank you so much for the suggestions! I had no idea there was so much to do here. But how can I get around to see these places?

Resident : We have one bus that goes around the island. Or you can try hitchhiking! That is how a lot of people get around. I hope you enjoy your stay here.

여행객 : 저는 며칠간 백령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게 할 만한 것들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주민 : 백령도는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국 전쟁기간 동안에 활주로로 쓰였던 해변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변은 전 세계에 딱 두 곳 뿐입니다.

여행객 : 아, 그렇습니까? 참 흥미로운 얘기군요. 제가 꼭 봐야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역주민 : 여기에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콩돌해변이라고 불립니다. 이 주변에는 바닷물 위로 지는 일몰을 앉아 볼 수 있는 많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행객 :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령도에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지역주민 : 여기에는 백령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히치하이킹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머무는 동안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글 · **Lynn Marie**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강사

Baengnyeong Island is located in the West Sea. The name means 'white crane wings'. Some places to visit in Baengnyeong Island are Sagot Beach and Dumujin Beach. Sagot Beach is famous for its natural landing strip, similar to Italy's Naples, and the pine trees along its shoreline are very beautiful. When the water recedes, you can see the white sandbank where cargo planes used to land, and because the sand is so soft, they say the planes left no tire tracks. The Dumujin Beach, on the other hand, is famous for its vertical cliffs and Giamgoeseok(strange and fantastic looking rocks). You can see many rocks with interesting names, such as Candle Rock, Brother Rock, Elephant Rock. These rocks closely resemble the shapes they are named after.

백령도는 우리나라 서해상에 있다. 백령도에서 가볼만한 곳으로는 사곶해변과 두문진해변이 있다. 사곶해변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비슷한 천연비행장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백령도의 해변가를 따라 늘어선 소나무들이 매우 아름답다. 썰물 때면, 화물수송기가 이륙할 때 활주로로 이용하던 하얀 모래톱을 볼 수 있다. 이 해변은 모래가 부드럽기 때문에 비행기가 타이어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반면, 두무진해변은 곧추선 절벽과 신비한 자태를 한 기암괴석으로 유명하다. 이 곳에서는 촛대바위, 형제바위, 코끼리바위처럼 흥미로운 이름을 가진 바위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바위들은 붙여진 모양 그대로를 꼭 닮았다.

2009 인천방문의 해 VISIT INCHEON 2009, KOREA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 기원

송년제야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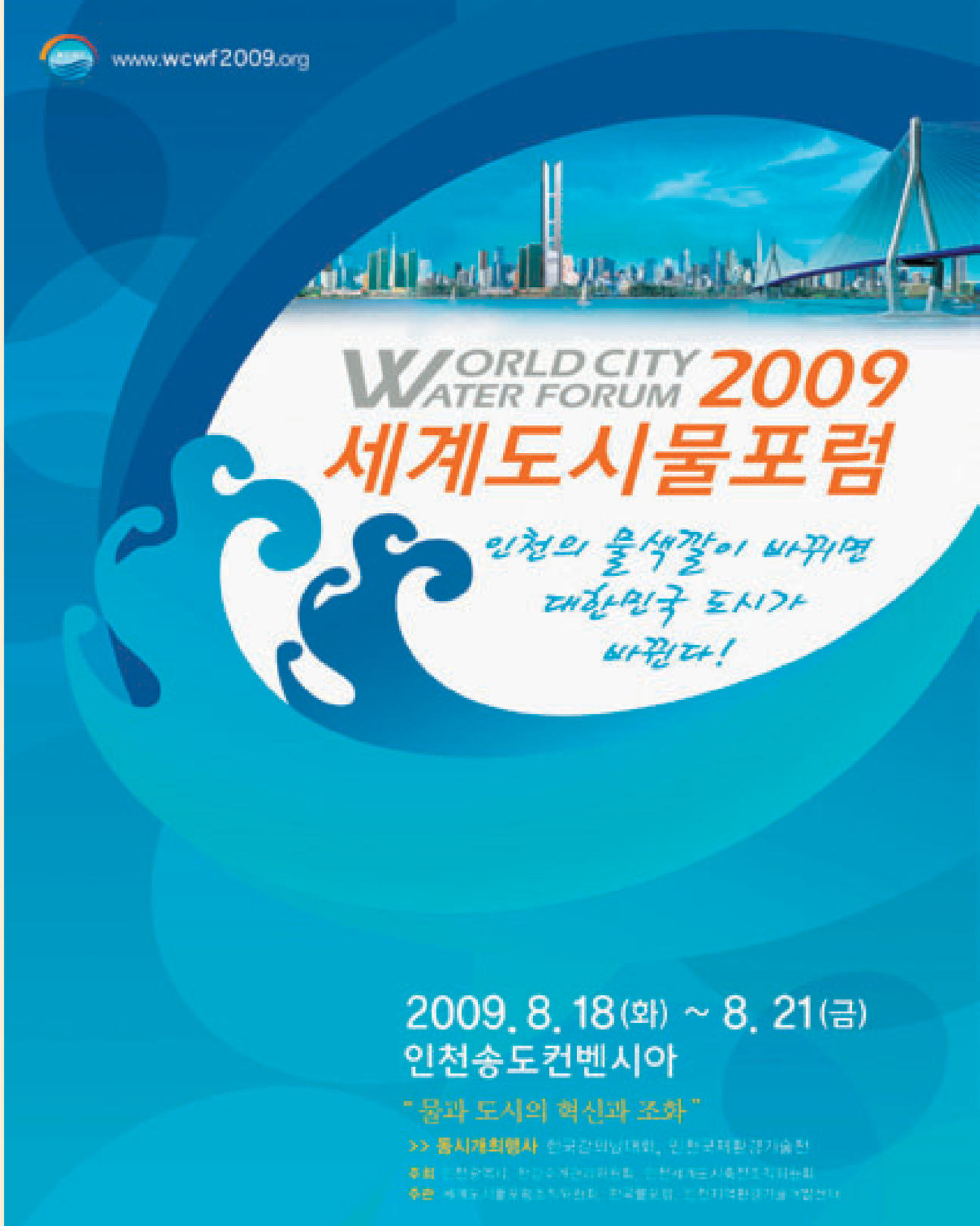
2008년 12월 31일(수) 16:00
~ 2009년 1월 1일(목) 01: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 주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주관 기호일보 사단법인 인천문화축제발전협의회
| 문의 ☎ 431-6200

행사내용
▶ 꿈의 도시 인천, 새로운 도약 2009 카운트다운!
▶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기원 촛불행사
▶ 도시축전 성공기원 시민화합 한마당
▶ 우리 가족 소원등 밝히기
▶ 재미로 보는 컴퓨터 토정비결
▶ 굿모닝 인천 새해소원 광장
▶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
▶ TBN인천교통방송 특집 생방송
▶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불꽃축제!

포구의 겨울잠

김재열 作 · 32㎝×24㎝ · Pen & Watercolor · 2006

소래포구에 가면 언제나 생기가 돈다. 갈매기가 날고 작은 어선들이 오가고, 비린내도 젓갈냄새도 나고, 철교 위로 인파들이 건너고 …

그런 어촌의 정취가 흠뻑 배어 있던 소래포구가 회색 아파트 숲으로 꽉 채워질 것만 같아 안타깝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려 몇 해 전 눈으로 덮여있던 소래포구의 풍정을 펜과 수채물감으로 그려보았다.